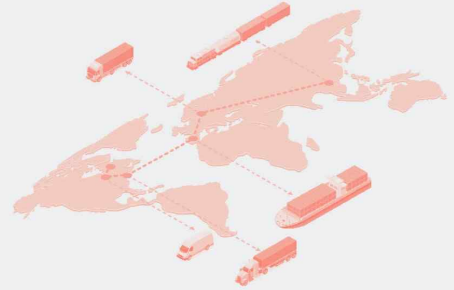




# 2024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 2024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 목 차

[요 약]	4
제1장 2024 세계 경제·교역 전망	5
제2장 2023 한국 수출 평가	8
제3장 2024 한국 수출 전망	9
제4장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14
제1절 북미	14
제2절 중국	18
제3절 EU	23
제4절 일본	28
제5절 ASEAN·대양주	33
제6절 인도	38
제7절 중동	43
제8절 중남미	48
제9절 CIS	52
제10절 아프리카	58

**요 약**

- (총괄) '24년 우리 수출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며 증가세 회복 전망
  - 세계 IT경기 회복으로 인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친환경 자동차·기계 또한 견조한 수요에 수출 성장세 유지 전망
  - 세계 교역 및 아시아 교역의 개선 흐름이 수출 상방 요인으로 작용
  - 반면,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 하방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 추이 및 '24년 전망 (억 달러, %) 】**



- (권역) 중국·아세안 수출 회복, 북미·EU는 소폭 증가세 전망
  - 중국의 내수 부진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신흥국 성장 흐름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예상
  - 미국·EU 친환경차, 프리미엄 전자·통신기기 수요 증가,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

**【 2024년 지역별 수출 전망 기상도 】**

북미	중국	EU	일본	아세안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	☀️	☀️	☀️	☀️	☀️	☀️	☀️	☀️	☀️	☀️
☀️ 대폭증가(10% 이상)   ☀️ 소폭증가(3~10%)   ☁️ 현상유지(0~3%)   ☀️ 소폭감소(0~10%)   ☁️ 대폭감소(-10% 이상) * 주 : 기타지역(대만, 홍콩, 마셜제도 등) 제외										

- (품목) 소비위축 등 불확실성 장기화로 주력 품목 수출 증가 둔화
  - (주력) 프리미엄 디지털기기, 무선통신기기 등 글로벌 ICT 품목의 수요 회복, 자동차·기계 품목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 예상
  - (신성장) AI산업 확대에 따른 HBM(High Bandwidth Memory), 고용량 스토리지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관련 품목의 수출 신장 예상
  - (中企품목) 전 세계적인 한류 문화와 K-콘텐츠 확산으로 의류 및 문화 콘텐츠, 화장품·식품 등의 소비재 수요 확대 예상

# I 2024년 세계 경제·교역 전망

□ (세계 경제) '24년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불안과 통화긴축 장기화, 중국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2%대 성장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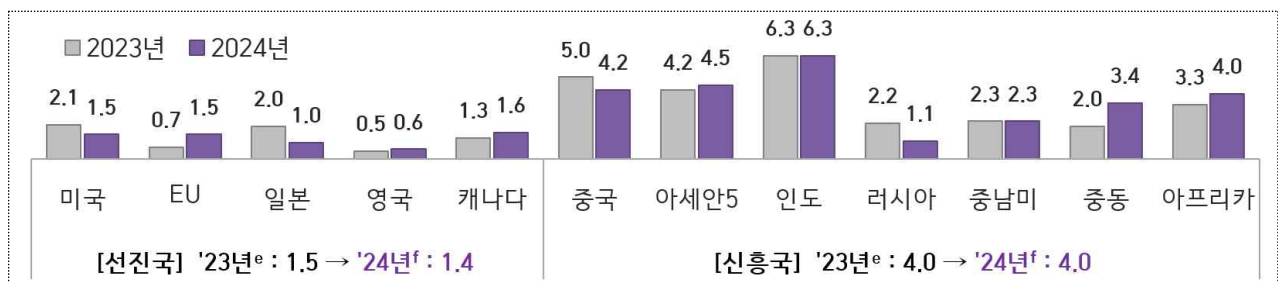
【 주요 기관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

연도	OECD ('23.11)	IMF ('23.10)	EIU ('23.12)	WTO ('23.10)	IB 평균 ('23.11) <sup>1)</sup>
'23년	2.9	3.0	2.5	2.6	3.1
'24년	<b>2.7</b>	<b>2.9</b>	<b>2.2</b>	<b>2.5</b>	<b>2.7</b>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주 1) IB는 Citi, 골드만삭스 등 8개사 평균

- (지정학적 불안) 러-우 사태 장기화, 중동 사태 발생 및 미-중 경쟁 등 진영 간 대립과 분열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
  - 강대국과 자원보유국의 자국·우호국 우선 보호무역 조치\*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경제 분절화
    -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강화 등
    - (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갈륨·흑연 수출통제법 개정 등
- (제한적 성장)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긴축 통화정책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 소폭 둔화, 신흥국 보합세 전망

【 주요 권역·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



\* 자료원 : IMF('23.10)

- 중국은 리오프닝 회복 지연\*과 부동산 리스크로 인한 내수 침체\*\*, 투자 부진\*\*\*, 고용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 중국 경제성장률(IMF) : <sup>(21)</sup> 8.5 → <sup>(22)</sup> 3.0 → <sup>(23)</sup> 5.0 → <sup>(24)</sup> 4.2
  - \*\*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 <sup>(21)</sup> 12.5 → <sup>(22)</sup> △0.2 → <sup>(23)</sup> 7.6 → <sup>(24)</sup> 5.4
  - \*\*\* 중국 부동산 투자 증가율(%) : <sup>(21)</sup> 4.4 → <sup>(22)</sup> △10 → <sup>(23)</sup> △9.3

- 다만, 제조업 수출여건 개선세가 보이는 아시아\*와 에너지·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수혜에 힘입은 중동\*\*은 성장세 전망

\* 수출물량 증가율('23 → '24, %, IMF): (아세안) 2.4 → 6.1, (아시아 개발도상국)  $\Delta$ 1.3 → 2.3

\* EIA 유가 전망(브렌트유, \$/bbl) : ('22) 101 → ('23) 84 → ('24) 95

〈참고〉 2024년 한국경제 전망

- '24년 한국은 2.3%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OECD, '23.11.)
- '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IT경기의 회복, 관련 품목의 수출 개선 및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은 경기개선 흐름이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미-중 관계 등 대외변동성이 주요 변수이며,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 경기개선으로 상승 전망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

연도	OECD	IMF ('22.10)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KDI	EIU ('23.10)
'23년	1.4	1.4	1.4	1.3	1.4	1.3
'24년	<b>2.3</b>	<b>2.2</b>	<b>2.1</b>	<b>2.0</b>	<b>2.2</b>	<b>2.4</b>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23.11월)

- (세계 교역) 전년도에 부진에서 벗어나 3.5% 성장 전망(IMF, '23.10.)

- (교역 회복) 세계 IT경기 개선, 주요국 신성장산업, 공급망 재배치 관련 투자 증가 등으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전망

- 세계 교역의 완만한 증가세 기대 속 러-우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대 여부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성장 제약 요건으로 작용

【 기관별 세계 교역 증감률 전망 (단위 : %) 】

연도	WTO ('23.10)	OECD ('23.11)	IMF ('23.10)	EIU ('23.12)	한국은행 ('23.11)
'23년	0.8	1.1	0.9	0.7	0.8
'24년	<b>3.3</b>	<b>2.7</b>	<b>3.5</b>	<b>2.7</b>	<b>3.4</b>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수입 확대) CIS를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개선된 수입수요 예상

【 주요 권역별 상품교역량 증감률 전망 (단위 : % / 자료원 : WTO('23.10.)) 】



◇ <참고> 권역별 경제·교역 호부진 요인 ◇

권역 (‘24년 성장률 전망)	긍정요인	불안요인	
선진국	<b>북미</b> (미국 : 1.5%)	· 고용시장 안정, 낮은 실업률 · 제조업(반도체·배터리 등) 육성책 강화 · 공급망 재편으로 동맹국 간 교역 증가	· 통화긴축 장기화로 경제 위축 ·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생산 위축 · 보호무역 경향 강화
	<b>EU</b> (1.5%)	· 역내 인플레이션 둔화 및 소비회복 · 탄소중립 관련 산업 성장 · 역내 방산 수요 지속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 환경규제 확대 · 역내 자체 제조역량 강화
	<b>일본</b> (1.0%)	· 디지털전환·탈탄소 관련 투자 증가 · 임금 상승 및 가계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	· 고물가·엔저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對韓 수출규제 및 정치외교 문제 · 고령화 가속화로 내수 소비 여력 감소
	<b>대양주</b> (호주 : 1.2%)	· 물가안정 및 안정적 경제성장 · 광업 활동 재개에 따른 기업투자 증가 · 신재생에너지·발전 인프라 투자 증가	·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 ·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신흥국	<b>중국</b> (4.2%)	· 경기부양책을 통한 내수확대 도모 · 적극적 자유무역협정 추진 · 탄소중심 관련 산업 성장세	· 미·중 경쟁 장기화 및 경기회복 지연 · 부동산 경기 침체, 고용악화, 소비 위축 · 탄소배출량 감축 조치 연계 환경규제 강화
	<b>동남아</b> (아세안 <sup>5</sup> : 4.5%)	· 역내 신규주문 증가로 인한 중간재 수요 증가 ·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부상 · 관광업 호황에 따른 소비심리 강세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강화 · 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
	<b>인도</b> (6.3%)	·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확산 · 정부의 제조업 집중 육성 ·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 보호무역주의(자국산업보호·수출입통제) · 행정 불확실성 및 열악한 인프라
	<b>중동</b> (사우디 : 4.0%)	· 역내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활발 ·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 유치 · 기업 활동여건 개선 및 규제완화	· 통화 약세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 유가 변동 및 정세 불안에 따른 리스크
	<b>아프리카</b> (4.0%)	· AfCFTA를 통한 교역확대 추진 · 제조업·인프라 등 산업 다각화 추진	· 기후변화 및 만성적 식량부족 · 고인플레이션 지속 · 환율 하락에 따른 외채부담 가중
	<b>중남미</b> (2.3%)	· 미·중 경쟁 심화로 니어쇼어링 확대 ·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 디지털화·인프라개선 가속화	· 낮은 신용 등급 · 유가, 환율 등 대외 변화 취약 ·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b>CIS</b> (러시아 : 1.1%)	· 공급망 재편 및 민관 투자 확대 · 최저 실업률 및 양호한 소비 · 에너지·원전 등 외부 협력수요 증가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지속 · 역내 정세불안으로 인한 유가 변동 · 통화가치 하락 및 높은 금리

\* 자료원 : IMF('23.10), KOTRA(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II 2023년 한국 수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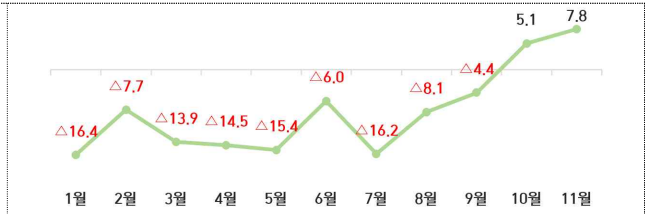
- '23년 우리 수출은 6,300억 달러대 기록 전망 (전년대비 7%대 감소)
  - (종합) 전년도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이 점진적 개선, 4분기를 기점으로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
    - \* 한국 수출액 및 증감률(억 달러, %) : ('21) 6,444(25.7) → ('22) 6,836 (6.1) → ('23e) 6,300대 (△7.8)
    - \*\* 분기별 평균 수출액(억 달러) : ('22.4Q) 530 → ('23.1Q) 504 → ('23.2Q) 519 → ('23.3Q) 524 → ('23.4Qe) 550대
    - \*\*\* 타기관 전망(억 달러, %) : (한은) 6,306(△7.8), (무협) 6,300(△7.8), (KDI) 6,406(△7.2)

【 월별 수출 실적 (억 달러, %) 】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 】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시장) 대미국·EU 수출은 친환경 자동차·기계 등 품목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증가, 중국·아세안·중남미 등 신흥국은 부진

【 10대 주요 시장별 수출액 및 증감률 ('23년 11월 누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구분	중국	미국	아세안	EU(27)	베트남	-
수출액(억달러)	1,140	1,044	998	632	489	-
증감률(%)	△21.2	4.0	△13.7	2.3	△13.1	-
구분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CIS	전체
수출액(억달러)	266	225	171	164	119	5,247
증감률(%)	△5.7	△7.6	8.3	△5.8	15.8	△8.7

- (품목) 15대 주요 품목 중 자동차(친환경차·대형SUV), 기계(생산·설비 투자 확대), 선박(수주물량 인도)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
  - 3개 품목을 제외한 반도체·무선통신기기(글로벌 수요 부진), 석유제품(수출 물량 감소) 등 12개 품목은 수출 실적 부진

【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 ('23년 11월 누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구분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차부품	선박
수출액(억달러)	876	645	488	477	419	325	212	183
증감률(%)	△27.1	32.6	4.9	△18.0	△17.3	△8.7	△0.6	16.5
구분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바이오헬스	섬유	이차전지	가전	컴퓨터	전체
수출액(억달러)	171	143	121	100	89	74	68	4,389
증감률(%)	△13.7	△10.8	△19.9	△11.3	△1.6	△1.3	△54.6	△10.5



### III 2024년 한국 수출 전망

- '24년 한국 수출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며 증가세 회복 전망
  - 세계 IT경기 회복\*으로 인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 예상, 친환경 자동차·기계 또한 견조한 수요\*\*\*에 수출 성장세 유지 전망
    - \* 세계 IT시장 전망(Gartner, 억 달러) : <sup>(23)</sup> 46,936 (3.5%) → <sup>(24)</sup> 50,698 (8.0%)
    - \*\* 메모리반도체, AI 서버, 데이터센터 등 수요 증가로 업황 개선
    - \*\*\* 세계 전기차 출하량(Gartner, 만대) : <sup>(23)</sup> 1,543 (34.3%) → <sup>(24)</sup> 1,845 (19.6%)
  - 세계 교역\* 및 아시아 교역\*\*의 개선 흐름이 수출 상방 요인으로 작용
    - \*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23→'24년, %) : (WTO) 0.8→3.3, (IMF) 0.9→3.5, (OECD) 1.1→2.7
    - \*\* 아시아 교역 증가율(WTO, '23→'24년, %) : (수출) 0.6 → 5.1, (수입) △0.4 → 5.8
  - 반면,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 추이 및 '24년 전망 (억 달러, %) 】



<참고> 국내외 주요기관 '24년 한국 수출증가율 전망 (%)

※ 주요기관은 '24년 한국의 수출(통관기준) 증가율을 3 ~ 9%로 전망

무역협회 ('23.11)	한국은행 ('23.11)	산업연구원 ('23.11)	KDI ('23.11)	현대경제연 ('23.09)	수출입은행 ('23.12)	OECD* ('23.11)	IMF* ('23.10)
7.9	9.3	5.6	6.7	8.9	8.0	4.0	3.5

\* OECD는 상품 및 서비스, IMF는 상품 물량 기준

□ (권역) 중국·아세안 수출 회복, 북미·EU는 소폭 증가세 전망

- 중국의 내수 부진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 성장 흐름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예상
  - \* 신흥시장 상품수입 증가율(WTO) ('23 → '24, %) : (아시아) △0.4 → 5.8
- 중국의 對세계 수출증가율이 우리의 중간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수출여건 개선시점에 따라 증가폭 변화 예상
- 미국·EU 친환경차, 프리미엄 전자·통신기기 수요 증가,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
  - \* 주요국 인프라 프로젝트 : 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 호조 예상

【 '24년 주요 권역별 수출 전망 】

권역		전망	수출 여건 및 전망
선진국	북미	소폭증가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와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소비가 위축될 전망이나, 제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로 소폭 증가 전망
	EU	소폭증가	•유럽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낮아지며 소비 회복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대양주 (AU, NZ)	소폭증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세와 경기 성장에 힘입어 소폭 증가 전망
	일본	소폭증가	•고물가·엔저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첨단산업,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 전망
신흥국	중국	소폭증가	•소비 회복세 부진, 미·중 경쟁 장기화 가운데 정부 내수진작책, 산업·무역구조 고도화, 대외 협력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아세안	소폭증가	•아세안으로의 중간재 수출 회복과 신규 주문의 점진적 증가, 관광업 성장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인도	소폭증가	•루피화 가치하락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도 인도의 제조업 육성책 및 소비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중동	대폭증가	•고유가 기조에 따른 흑자재정으로 역내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며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전망
	아프리카	소폭증가	•역내 제조업 육성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 소비 증가 및 인플레이션 완화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중남미	소폭증가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하방압력이 상존하나, 니어쇼어링 확대 및 원자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CIS	현상유지	•대러 제재 지속으로 인한 경기 부진 전망 속에서 CIS 주요국의 산업별 공급망 재편(자동차 등) 및 투자 확대 기조로 보합 전망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자료원 : KOTRA(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품목)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으로 주력품목 수출 증가세 전망

- (주력품목) 프리미엄 디지털기기, 무선통신기기 등 글로벌 ICT 수요 회복\*, 자동차·기계도 견조한 수요\*\* 예상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의 회복과 고사양 모델 신규 출시로 증가세

\*\* 미 중심 친환경차(전기차)·대형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호조






- (신성장품목) AI산업 확대에 따른 HBM(High Bandwidth Memory), DDR(Double Data Rate) 5, 고용량 스토리지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관련 품목의 수출 신장 예상

\* HBM 시장 전망(Gartner, 억 달러) : <sup>(24)</sup> 33.2 → <sup>(27)</sup> 51.8 (연평균 16% 성장 전망)

\* 세계 데이터센터 시스템 전망(Gartner, 억 달러) : <sup>(23)</sup> 2,377(4.7%) → <sup>(24)</sup> 2,602(9.5%)

- (중소기업품목) 전 세계적인 한류 문화와 K-콘텐츠 확산으로 의류 및 문화 콘텐츠, 화장품·식품 등의 소비재 수요 확대 예상

【 '24년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품목	전망	수출 증감 요인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ICT 시장 회복과 AI 서비스 산업 확대로 반도체 수요 증가</li> <li>• 메모리반도체(D램, 낸드) 가격 상승세 및 감산정책으로 재고율 개선되는 추세로 관련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늘어날 전망</li> </ul>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램 고정부(\$): <sup>(21.3Q)</sup> 4.10 → <sup>(22.1Q)</sup> 3.41 → <sup>(22.3Q)</sup> 2.86 → <sup>(23.1Q)</sup> 1.81 → <sup>(23.3Q)</sup> 1.31 → <sup>(23.10)</sup> 1.50</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확대 기조, 친환경·SUV 차량 중심 수출단가 높은 차종 수출 호조세</li> <li>* 한편,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도 중고차 수출 증가세</li> </ul>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의 현지생산 계획에 따라 한국발 완성차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li> <li>* (美) IRA-전기차 역내 생산 강제,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으로 제한적 수출</li> </ul>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 건설·인프라 투자 지속 및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 증가 기대</li> <li>* (美-EU) 첨단산업(전기차, 이차전지) 공급망 확충 및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확대 (중동) 플랜트 수주 확대,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기대 등</li> </ul>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면, 中 경기회복 지연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등은 수출 저해 요인</li> </ul>
석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유국 감산으로 인한 유가의 소폭 상승은 수출 증가요인이거나, 글로벌 정제설비 증설로 인한 중국과 인도의 공급과잉으로 경쟁 심화 전망</li> </ul>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I) <sup>(23하)</sup> 74.97 → <sup>(24상)</sup> 77.49, (브렌트) <sup>(23하)</sup> 79.15 → <sup>(24상)</sup> 82.49 (美EIA)</li> </ul>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자체 생산설비 증설로 석유화학 가격경쟁 심화</li> <li>* 석유화학 수출단가(\$/톤) : <sup>(22.11월)</sup> 1,264(△14.1%) → <sup>(23.11월)</sup> 1,205(△4.7%)</li> </ul>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된 과잉공급 및 신규 증설 물량 추가 공급으로 우리 제품 수출에 위협 요인</li> </ul>

품목	전망	수출 증감 요인
철강제품		• 美, EU, 중동, 신흥국 등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는 수출 기회 요인으로 작용
	소폭증가	• 中 건설경기 부진과 저가의 중국산 공급과잉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
자동차부품		• 현지 완성차 생산비중 증가와 중고차 애프터마켓 성장으로 車부품 수요 증가
	소폭증가	• 우리 진출기업 현지생산 공장이 있는 미국, 유럽, 인도 등으로 부품 수출 증가 기대
선박류		• '20년~'21년 수주 물량 인도로 수출 증가세 전망하나, 세계 신조선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 '24년 국내 수주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소폭증가	• 고금리에 따른 투자 보류 및 발주량 감소, 인력 부족 등 불확실성 상존 * '24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 전망 (수은) : 2,900만CGT (전년비△25%) * '24년 발주액 전망 (수은) : 810억불 (전년비△24%)
디스플레이		• 폴더블폰, OLED TV, 저전력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 제품 수출 기반 강화
	소폭증가	• 디스플레이 공급과잉 환경 '24년까지 지속될 전망(시장조사업체 DSCC) * '23.1~3분기 전 세계 디스플레이 공장가동률은 상승했으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4분기 감소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4년부터 반등이 기대되나, 중국 저가 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
	대폭증가	* 스마트폰 출하량 : <sup>(23.1Q)</sup> 2억 6900만대, <sup>(23.2Q)</sup> 2억 6800만대, <sup>(23.3Q)</sup> 3억 400만대 • 고물가로 소비심리 위축되며 스마트폰 교체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군(폴더블폰) 인기 지속
섬유류		•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사 실적 부진으로 수입 수요 감소세
	현상유지	• 고물가 지속에 따른 구매력 감소,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이차전지		•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속도 조절 및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 생산에 영향 * 고금리에 따른 소비 둔화,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현상유지	• 생산공정 현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이 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발 이차전지 수출 감소 전망
가전		•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구매지연, 저가 제품 선호 현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
	현상유지	• 북미, 신흥국 대상 스마트홈, 에너지 고효율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 수요 회복 기대
컴퓨터		• 글로벌 ICT 수요 회복으로 PC 수요 회복 기대하나, 글로벌 경기둔화 변수 존재
	소폭증가	• 기업용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버 투자 위축으로 기업용 SSD 수요 둔화
화장품		• 한류 효과로 한국산 화장품 관심 증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호조 예상
	대폭증가	• 대중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전반적 호조세 이어나갈 전망이며, 시장에 특화*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 * (EU) 절약소비로 가격경쟁력 중요, (日) 중저가 색조화장품, 안티에이징, 미백케어 관심, (中) 프리미엄화, (중동, ASEAN) 할랄 인증 등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자료원 : KOTRA(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 주 : '23년(1-11월) 수출 실적 순서로 정렬

◇ 2024년 지역별 주요 품목 수출 전망 ◇

품목명	2024년 수출 전망											
	품목 종합	북 미	중 국	E U	일 본	아 세 안	대 양 주	인 도	중 동	중 남 미	C I S	아프 리카
지역 종합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												
자동차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선박류												
화장품												
이차전지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자료원 : KOTRA(KOTRA 해외지역본부 의견 종합)

## IV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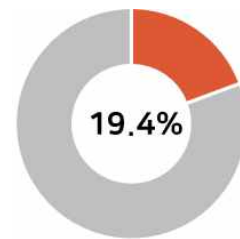
### 1 북미

◆ '24년 한국의 對북미 수출은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와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소비가 위축될 전망이다, 제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북미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북미 수출 비중('23년) 】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 성장) '24년 북미 경제성장률은 통화긴축 장기화 영향으로 1.5%에 그칠 전망(IMF, '23.10월)

○ (생산) 전미 자동차노조파업('23.9월부) 확산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이 급감하며 경기 하방 압력 증대

\* 美산업생산증가율(전월대비, %) : ('23.8월) 0.0 → (9월) 0.1 → (10월) △0.6  
 美구매관리자지수(PMI, p) : ('23.8월) 47.6 → (9월) 49.0 → (10월) 46.7

○ (소비) 인플레이션\* 둔화 및 소비회복이 관찰되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장기 경제전망 악화로 민간소비는 점차 둔화될 가능성

\* 소비자물가상승률(%) : (미) ('23.1월) 6.3, (4월) 5.0, (10월) 3.2, (캐) ('23.1월) 5.9, (4월) 4.4, (10월) 3.1

○ (고용) '23년 하반기 고용시장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과열됐던 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24년에는 경제둔화의 영향으로 다소 침체 전망

\* 실업률(OECD, '23→'24, %) : (미) 3.6 → 4.0, (캐) 5.4 → 6.0

○ (투자)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확대 및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장기 경제전망 악화로 투자 둔화 예상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부채 및 정치적 양극화를 근거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23.11월)

□ (정책) 통화긴축 장기화 속 제조업 육성정책 강화

- (통화정책) 美 연준은 '23.11월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로 동결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장기화 가능성 시사
  - 캐나다 또한 고금리(5.0%, '23.7월부)를 유지하며 긴축적 통화정책 지속
  -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이 추후 북미지역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가능성
- (산업정책) 공급망 회복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 육성책 강화
  -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핵심분야 제조업 육성정책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부문 대규모 투자유치
  - 반도체·전자, 전기차·배터리, 청정에너지, 바이오제조, 중공업 포함 총 5개 분야 제조업에 4,100억 달러('21.1월~'23.5월)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유치 완료
  - 특히 반도체·전자 분야에 전체 투자 금액의 46%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기차·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 비중은 48% 수준
- (공급망)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 추진
  - 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통해 북미지역 국가를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정의하며 북미지역 내의 가치사슬 및 상호의존성 강화
    - \* IRA Section 13401 : 세액공제를 위한 전기차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 원료 확보부터 재활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 추구
  -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잠재적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제조업 부흥 시도
    - \*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우방국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가까운 우방국인 경우엔 니어쇼어링이라고 표현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중국 견제 심화에 따른 동맹국 간 교역 증가
  - 글로벌 가치사슬이 역내 가치사슬(RVC)로 대체됨에 따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동맹국 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전망
  -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한 협력 및 규제가 진행되고 있어 기회 및 위기 요인 병존
    -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
      - \* IPEF 장관회의에서 (1)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 (2) 인재 개발, (3)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4) 투자 촉진, (5) 위기 대응 강화 등 회원국 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
    - (TTC)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4차 회의('23.5월)에서 디지털 교역, 신홍기술, 반도체 공급망, 공정 무역 환경 조성 등의 협력에 합의
    - (광물협정) 미국-일본 IRA 보조금 대상 핵심 광물 무역 협정 체결('23.3월)
    - (GASSA) 미국-EU '지속 가능한 철강·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합의' 협상
- (산업환경)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으로 제조업 FDI 증가 전망
  - (자동차)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 회복 및 IRA 영향으로 향후 북미 내 생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반도체) 업계 전반의 하락 사이클은 반등할 전망이며, AI·자율주행 등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확대 및 대중 기술 규제 강화 전망
  - (철강) 고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상승, 재고 적체 등으로 수요 침체가 예상되며, 철강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
  - (무선통신기기) 글로벌 수요 침체에도 불구하고, 5G 통신망 확대\*에 따라 관련 통신장비 수요 증가 전망
    - \* 美 2030년까지 \$420억 투자 발표
  - (AI) 향후 AI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북미 양국 정부는 지원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 확대
    - IBM의 조사에 따르면, '22년 기준, 미국 기업 내 AI 도입률이 평균 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반도체, 자동차부품, 자동차, 일반기계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폰, PC, 서버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ICT 산업 회복이 기대되며, 단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 전망</li> <li>전기차, AI, 공장 자동화 등 고성능 반도체 신규 수요 증대</li> </ul>
자동차부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미 공장 생산 증가에 따라 부품 수출 증가 전망</li> <li>캐나다의 한국산 중고차 수입 증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도 주목할 필요 있음.</li> </ul>
자동차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 정상화로 생산 안정화</li> <li>전기차 시장 성장세 및 우리 자동차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북미 판매율 전년 대비 증가, 양호한 흐름 이어갈 전망</li> </ul>
일반기계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투자법(IIJA) 및 리쇼어링 정책으로 기초산업기계 및 기타기계 부문의 성장이 전체 일반기계 수요 증가 견인</li> <li>* 기초산업기계 : 운반로봇 및 산업용 보일러 수요 급증 예상</li> <li>* 기타기계 : 美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계 수요 증가 전망</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철강제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 스마트폰과 같은 평판디스플레이 전방 수요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li> <li>대형 LCD와 고가의 OLED 제품에 대한 수요가 2024년의 디스플레이 수출 업황에 큰 영향 전망</li> </ul>
이차전지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美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속도 조절, 단기적 이차전지 수요 위축 가능성</li> <li>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현지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수요 변동성 지속하며 유지할 것으로 예상</li> </ul>
철강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제조업 둔화로 수요 감소 예측</li> <li>美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군용 철강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미국 기업들에게 우선적 수혜가 돌아가 수입산 철강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li> </ul>

### □ [감소 예상 품목] 석유화학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수요 감소로 PVC 등 건설 관련 범용 화학제품 및 포장재 등 소비재용 화학제품 역시 수요 둔화 전망</li> <li>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공급 과잉 현상 지속</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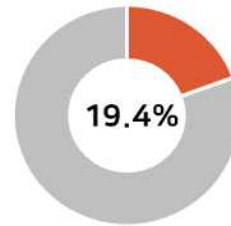
## 2 중국

◆ '24년 對중국 수출은 긍정요인(내수진작책, 산업·무역구조 고도화, 대외 협력수요 증가)과 부정요인(소비 회복세 부진, 미·중 경쟁 장기화)이 공존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23년) 】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인 5% 내외 달성 전망이며, '24년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약 4.2% 성장 예상(IMF, '23.10월)

\* '23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 ('23.1Q) 4.5 → ('23.2Q) 6.3 → ('23.3Q) 4.9%

- 리오프닝 이후 소비회복세 미진, 기업 투자심리 약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 다중악재로 경제성장 동력 약화 전망

○ (생산) 의약·하이테크 제조업 생산은 부진했지만, 신에너지차, 태양광 전지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은 성장세 뚜렷

○ (소비) 연초 리오프닝 효과로 외식 및 온라인 소비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고용여건 악화로 여타 가계소비가 줄어들며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세

\* '23년 3분기 소비증가율(전년 대비, %) : 외식소비(18.7), 온라인소비(11.6%), 사회소비품(6.8%)

○ (고용) 지난 4월, 중국 고용 환경 악화로 청년실업률이 사상 처음 20%를 돌파한 데 이어 6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21.3% 기록

○ (투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정자산 투자가 둔화세를 보이며 '23년 3분기 누계 기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1%를 기록

○ (교역) '23년 3분기(누계) 기준 수출입은 전년 대비 각각 △5.7%, △7.5% 감소했으나, 당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수출입 감소폭은 8월 이후 소폭 개선세

- (정책) 경기하방 압력 속 경기부양책을 통한 내수확대 도모 및 공급망 강화 추진
  - (통화정책)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 안정화 추진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 \* 1년만기 LPR(%) : ('22.8월) 3.65 → ('23.6월) 3.55 → ('23.8월) 3.45
      - 5년만기 LPR(%) : ('22.8월) 4.30 → ('23.6월) 4.20 → ('23.8월) 4.20
  - (경기부양책)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내수 확대에 총력
    - '2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침을 결정하는 중앙정치국회의('23.7월)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종합 대책인 '소비진작 20조\*' 발표
      - \* 세부 내용 : ▲중점 품목의 소비 안정화 대책 강화 ▲서비스 소비 확대 ▲농촌지역 소비 자극 ▲신소비 육성 ▲관련 인프라 개선 ▲소비 안심 환경 조성 등
    - 과거 외수(수출) 및 투자(재정·외국인 투자) 중심 성장에서 자립형 경제구도 구축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
      - \* 내수에서 신수요 발굴을 통해 GVC 변화, 세계침체, 對中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계획
    - 또한,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구매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부동산업체 금융지원 강화 등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에 노력
    - 미·중 간 금리격차 및 강달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 환율 조정을 통해 위안화 자산가치 방어
      - \* 달러/위안화 환율(월 평균) : ('23.1월) 6.7976 → (4월) 6.8852 → (7월) 7.1619 → (10월) 7.1786
  - (산업정책) 공급망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강화
    - 중국 정부는 경공업, 기계 설비, 전자 등 중점 산업의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 추진
    - 산업의 첨단화, 그린화, 스마트화,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완전한 원료 공급 밸류체인 구축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적극적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지역·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국산화를 통해 미국 경쟁 장기화에 대응
  - (협정) 다자주의를 통해 新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며 서방의 전방위적 견제에 대응
    -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 회원국에서 전면 발효(23.6월)되면서 지역경제통합에 활력 주입
    - FTA 협상 및 활용에 속력을 내며 중국 주도의 공급망 및 新세계무역질서 구축
      - \*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 선진국 주도의 통상질서 타파
    - 특히 한국, 일본 등 지역으로부터 중요 부품·소재를 수입·가공해 동남아로는 일반 부품소재를 수출하고, 선진국으로는 고부가가치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 고도화 추세 가속화
    - 한편, 중국은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의지 강조
      - \* 영국은 '23.7월 가입이 승인되었지만, 중국과 대만은 가입 신청 중
  - (공급망) 미·중 경쟁 장기화와 GVC 재편이 맞물리며 중국 중심의 경제블록 가속화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핵심원자재를 대상으로한 수출통제 추진
  - 역내 가치사슬 형성 과정에서 중국은 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신흥공업국과의 무역구조도 고도화 추세
    - 신흥공업국과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이들 국가에서 저부가가치의 중간재를 수입하고 다시 고부가가치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출하는 교역구조 고도화 추세 뚜렷
    - 중국의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형 산업의 동남아 진출 본격화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무역은 관련 제품 중심으로 연결이 강화될 전망


- (산업환경) 디지털 전환·녹색성장 등을 통해 新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에 박차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형 인프라 구축 투자 프로젝트 지속 증가
    - 경제안정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강화(특별채권 지방잔액 한도 추가, 금융상품 증가) 및 프로젝트 건설 속도 가속화에 힘입어 인프라 투자 크게 증가
      - \* '22년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9.4%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23년에도 +6.8%로 증가세 유지
    - 제조업 및 디지털화 관련 투자는 증가하나, 부동산·민간기업 투자는 부진
      - \* '23년 10월(누계) 제조업 투자는 전년 대비 6.2% 상승하며 고정자산 증가율 상회
  - (디지털전환·녹색성장) 新SOC(새로운 인프라 구축) 기치 아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新SOC를 통한 내수확대 전략,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동시 추진
    -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청정에너지 대체, 신에너지 소비 확대, 저탄소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속 추진
  - (산업별 환경) 스마트 제조 등 기존 제조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 박차
    - (자동차) 중국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되며 제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반도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기술 자립화 도모
    - (이차전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및 핵심소재 수요 지속
    - (태양광) 중국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와 더불어 민간투자 또한 확대
    - (헬스케어) 고령화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 중이며, 최근에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분야도 급성장세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화장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반도체 장비 수요도 증가</li> <li>'23.10월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면서 중국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며, 진출 기업들의 사업 환경도 다소 개선</li> </ul>
무선통신기기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경기 회복 지연, 휴대폰 교체주기 장기화 등 부진 요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기기 시장 '24년 반등 기대와 프리미엄 제품군 인기로 수출 증가 전망</li> </ul>
화장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내 생산된 자국 브랜드 시장 비중 확대 추세</li> <li>단, '23년 중국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산 기능성·프리미엄 화장품 수출 소폭 증가 기대</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석유화학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세계 경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석유화학 산업 수요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li> <li>'23년 중국 파라크실렌(PX)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24년 중국 PX 시장은 수요 부진 및 공급 증가로 수입 수요 많지 않을 것(중국석유및화학공업연합회)</li> </ul>

### □ [감소 예상 품목]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일반/정밀기계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기계 수요 감소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24년 중국의 철강 전체 수요량이 '23년 대비 약 2% 감소할 것으로 전망</li> </ul>
자동차부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자동차 생산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중국 로컬 브랜드차 및 신에너지차 점유율 상승 전망</li> <li>단, 중국 차부품 경쟁력 강화 및 정부의 국산화 정책 등 영향으로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 자체가 감소세</li> </ul>
석유제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유가) 올 상반기 이후 '24년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안정될 것으로 예상</li> <li>(수급여건) 충분한 공급여력 하에서 부동산발 경기 둔화,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석유제품 수요 감소 예상됨</li> </ul>
일반/정밀기계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중국 인프라 투자 및 소비 분야의 성장 둔화로 일반 기계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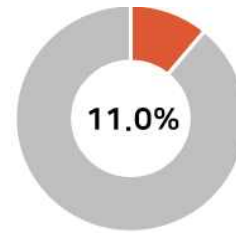
3 EU

◆ '24년 한국의 對EU 수출은 고금리 장기화와 각종 규제 확대 속 역내 물가 안정으로 인한 소비회복 및 투자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EU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EU 수출 비중('23년)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24년 EU 경기는 물가 완화 및 소비회복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 전망(IMF, '23.10월)

\* '23년 분기별 EU GDP 추이(전기 대비, %) : (1분기) 0.1 → (2분기) 0.0 → (3분기) 0.0

- 특히, '23년 역성장이 전망되는 독일(△0.5%), 헝가리(△0.3%), 핀란드(△0.1%), 스웨덴(△0.7%) 4개국까지 모두 플러스 전환 예상

\* '24년 유럽국별 GDP 전망 : 독일(0.9%), 프랑스(1.3%), 이탈리아(0.7%), 스페인 (1.7%), 네덜란드(1.1%), 폴란드(2.3%), 스웨덴(0.6%)

○ (생산) 대외수요 부진에 따른 신규 수주감소로 제조업 경기둔화 기조가 지속됐으나, '24년 중국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그간 생산 부진세를 겪어오던 독일을 중심으로 산업생산 개선 기대

\* '23년 유로존 제조업 PMI 추이(p) : (3월) 47.3 → (6월) 43.4 → (9월) 43.4 → (10월) 43.0

○ (소비)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과 금리인상 여파로 역내 소비심리 위축세가 지속 중이나, '24년 EU 민간 소비는 역내 물가상승 완화 전망에 힘입어 '23년 대비 1.8% 증가 전망

\* 분기별 EU 민간소비 증가율(전기 대비, %) : ('22.4분기) △0.7 → ('23.1분기) 0.0% → (2분기) 0.1%  
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연평균, 전년 대비, %) : ('23년) 5.6 → ('24년) 3.2 → ('25년) 2.1

- (투자) '24년은 기업투자 여건 개선으로 EU 설비투자가 '23년 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며, 공공투자 부문 또한 각국 정부의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집행 가속에 따라 '24년 3.4% 증가 전망
- (정책) 통화긴축 장기화 속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정책 추진 및 환경규제 확대 움직임 가속
  - (통화정책) ECB, 10회 연속 금리 인상 단행 후, '23.10월 첫 금리 동결\* 발표
    - \* ECB 정책금리 현황('23.11.) : 리파이낸싱금리(4.5%), 수신금리(4.0%), 한계대출금리(4.75%)
    -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역내 제조업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ECB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배경
    - 금리 동결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유럽의 물가상승률이 ECB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어 ECB 긴축기조는 당분간 지속 전망
  - (산업정책) 미래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내 자체 제조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육성정책' 발표
    - (반도체법) 역내 반도체 생산 자립을 위한 대규모 산업육성정책 '반도체법'을 발효('23.9월부)하며, '30년까지 글로벌 생산량의 20% 달성을 목표로 33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이니셔티브 설립 및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유치 등 공급망 구축에 43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예정
    - (탄소중립산업법) '30년까지 친환경 산업별 역내 연간 수요의 40% 역내 제조를 목표로 탄소중립 생산시설의 인허가 간소화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안 제안('23.3월)
    - (탈탄소정책)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환경규제 상당수 입법 진전
      - \* '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전산업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한 입법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21.7월)하고, 총 13개의 세부 입법안 중 8개 법안 입법 완료('23년)
      - \* 특히,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와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하는 자동차 CO<sub>2</sub> 배출규제('23.5월부 발효) 및 대체연료 인프라지침('23.10월부 발효)의 입법 완료로 역내 전기차 전환속도는 더욱 가속될 전망

**【 자동차 CO<sub>2</sub> 배출 규제('23.5월부 발효) 】**

- ▶ '30년까지 신규 승용차의 CO<sub>2</sub> 배출량을 '21년 대비 55%(승용차), 50%(밴) 감축하고, '35년까지 '21년 대비 100% 감축하는 탄소 배출량 목표 설정(사실상 '35년부 역내 내연 승용차 신규 판매 금지)
- ▶ 다만, 합성연료 사용 신차는 예외적으로 명시하면서 합성연료 정의를 두고 논의 활발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따라 산업별 각종 통상 규제 확대
  - EU '신(新) 통상전략'(21.3)에서 강조되었던 '개방형 자율성'이 '안보'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로 변화하면서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보조금 규정 등 주로 환경 및 공정경쟁 이슈가 통상 규제와 연계되어 입법화됐으며, 이는 역외기업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CBAM) 역외산 고탄소 제품에 대해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본격 시행('23.10월~'25.12월)
    - CBAM 대상품목을 역내로 수입 시 제품별 탄소 내재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수입자가 구매토록 의무화
      - \* EU로 수입되는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비료, 전력 등 6개 품목 (군사용 물품 및 내재가치 150유로 미만 수입품은 면제)
    -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하며, 본격시행시 수입자는 CBAM 인증서 의무 발생('26.1.1.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역외보조금) EU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23.7월부) 및 사전 신고의무('23.10.월부) 적용
    -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역내 시장 왜곡을 규제하는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시, 사전 신고 의무 부여
      - \* (기업결합) 역내 설립, 역내 매출 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재정적 기여액 5천만 유로 초과
      - \*\* (공공조달) 조달가액 2.5억 유로 이상 및 3년간 역외국별 재정적 기여액 4백만 유로 이상
    - 대상기업은 보조금 사전 신고 의무를 지니며, 집행위는 예비검토, 심층조사 및 균형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
      - \* 보조금의 부정 및 긍정효과 비교
      - \*\* 위반 시, 총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일평균 총 매출액의 5%까지 이행과징금 부과
    - 이에 따라 EU 내 M&A 투자 진출 및 공공 조달 참여기업은 규제 적용 여부 점검 및 해당 무역장벽에 대한 사전 대응 필요

- (산업환경)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산업 발생 및 관련 시장 수요 지속 전망
  - (배터리) EU 배터리법 입법 완료('23.8월부) 및 폐배터리 산업 성장 전망
    - 역내에서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배터리 법 발효로, 역내 배터리 최초 판매기업에게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생산자책임 부여
      - \* '30년부터는 생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
    - 이에 따라, 배터리 생애주기에서 '생산'에만 집중되었던 시장 수요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30년까지 EU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22억 유로 이상이 투자될 전망(PwC, EU Recycling market, '23.8월)
  - (의료기기) 동유럽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가속
    - EU 결속정책기금('21~'27년)\* 및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26년)을 활용한 역내 국공립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으로 의료기기 시장 수요 확대 지속
      - \* EU 7개년 예산에 포함됐으며 동유럽 국가에 대부분 투입되어 사회통합(의료, 교육 등), 디지털전환, SOC 인프라 구축에 활용(총 기금의 49%가 중동부 국가에 배정)

**【 국가별 의료인프라 현대화 추이 】**

- ▶ (헝가리) '26년까지 23개 주요 병원 및 외래진료소에 의료장비 조달 예정
- ▶ (슬로바키아)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12억 유로 배정
  - \* 전국 국공립 병원 140여개가 80여개로 통합/대형화되면서 진단장비 등 의료기기 신규수요 발생
- ▶ (불가리아) 심장/뇌/아동전문 병원 건립프로젝트 7개 이상 추진 중

- 특히, '26년까지 자금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의 경우 374억 유로가 역내 의료체계 개선에 배정되면서, 남은 기간동안 의료 인프라, 접근성, 지속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 증가할 전망






- (방산) 유럽이 방위산업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며 역내 무기 수요 지속 예상
  - 러-우 사태 장기화 및 안보의식 강화로 역내 무기 수요가 지속되면서 EU의 역외무기 수입액은 '22년 49.6% 증가한 데 이어 '23.8월 누계 기준 77.4% 증가
  - 역내 경쟁적 군비 확충 움직임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군현대화 추진으로 향후 역내 방산 수요 지속될 전망

**【 국가별 방산지출 현황 】**



- ▶ (폴란드) '24년 GDP의 4% 이상을 국방예산으로 지출 예정
- ▶ (체코) '23.7월 GDP의 2% 국방비 확보 법제화 완료
- ▶ (불가리아) 군현대화 프로젝트에 '32년까지 32억 유로 투입 예정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증가 예상 품목] 철강제품, 석유화학, 일반/정밀기계, 평판디스플레이, 차부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와 기계 분야의 점진적 회복세와 '24년 역내 인프라 구축 및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철강수요 증가 예상</li> <li>*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과 세이프가드 연장(~'24.6월부)으로, 수출규제 요인 상존</li> </ul>
석유화학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의 중국산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한국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li> <li>유럽 내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재생 및 친환경 소재 전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li> </ul>
일반/정밀기계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배터리 공장 생산공장 증설로 기계장비 수요 지속 전망</li> <li>역내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개·보수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광대역 통신망, 고속도로 건설 등) 진행도 건설 기계 장비 수요 증가 요인</li> </ul>
평판디스플레이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 영향으로 침체가 지속되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돌파구로 등장,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전기차 출시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며 부품수요 증가</li> <li>와이어링 하네스 등 자동차부품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차량 생산이 정상화됨에 따라 현지 차부품 수요 소폭 상승 전망</li> </ul>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자동차, 이차전지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우선주의 강화 및 중국산 중저가 전기차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역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li> <li>역내 국산차의 자동차 부품 수급 개선 및 전기차 중심의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li> </ul>
이차전지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현재 주문 상황 및 자동차회사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이차전지 수출물량은 소폭 상승 예상</li> <li>다만, 이차전지 생산공정 현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수출 비중 감소가 예상되며, 역내 배터리 진출기업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전망</li> </ul>

□ [감소 예상 품목] 무선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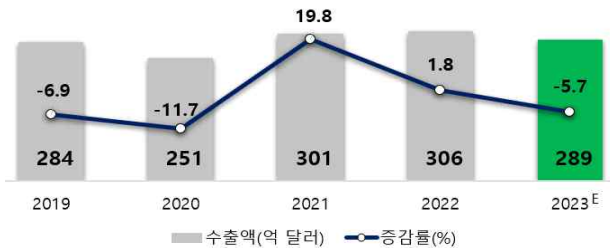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폰 교체 시기 장기화 및 신규 수요 감소로 무선통신기기 판매액은 크게 감소 전망</li> <li>* 유럽 스마트폰 재고량 증가로, '23년 3분기 기준 EU지역 도착 기준 스마트폰 출하량은 직전분기 대비 20% 감소</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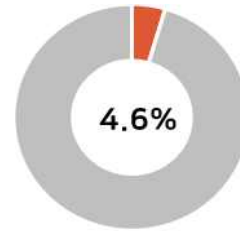
## 4 일본

◆ '24년 對일본 수출은 수출 경기 상방요인(첨단산업·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 수요 증가)과 하방요인(고물가·엔저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이 혼재, 전년대비 소폭 증가 전망

【 한국의 대일본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일본 수출 비중('23년) 】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24년 경제성장률은 '23년 대비 하락한 1.0% 전망(IMF, '23.10월)

○ (생산) 중국 경기둔화 및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하방 압력이 존재하나, 반도체 공급 완화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또한, 디지털전환 및 탈탄소 관련 생산설비 투자가 활발하며, 특히 '30년도 일본의 DX 시장 규모는 6조 5,195억 엔으로 '22년 대비 2.8배 확대될 전망

○ (소비) '24년 개인소비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및 가계저축 증가에 힘입어 '23년 대비 소폭(+0.9%) 증가 예상(미쓰비시UFJ, '23.6월)

-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서비스(외식, 숙박) 소비 증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원자재 등 수입 물가 상승으로 대부분 상쇄

\* '23년 실질 개인소비 증가율(전기 대비) : (1분기) 0.6% → (2분기) △0.6% → (3분기) 0.4%

- '24년에는 산유국의 원유 감산과 엔화약세가 이어지며 3%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 완화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수정될 경우, 상승률 둔화 가능성

\*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대비) : ('22.12월) 4.0% → ('23.3월) 3.1% → (6월) 3.3% → (8월) 3.1%

\*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전년 대비) : ('24.1분기) 3.2% → (2분기) 2.9% → (3분기) 2.3% → (4분기) 1.8%

- (투자) 정책적 중요성이 큰 디지털전환, 탈탄소,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24년 민간설비투자는 3년 연속 증가할 전망
  - 최근 엔저 장기화가 계속되고, 해외 인건비 상승 및 운송비의 변동성 등으로 생산거점의 국내 회귀 움직임이 확대
    - \* 민간설비투자(전기 대비, %) : ('22년) 3.1 → ('23년e) 3.0 → ('24년f) 3.0
- (환율) 미국의 금융긴축 기조 장기화로 엔화 가치 하락세\*가 계속되며 원자재·에너지 수입 기업들의 생산을 압박
  - \* 엔/달러 환율(엔) : ('22.10월) 151.9 → ('23.4월) 136.3 → (5월) 139.3 → (6월) 144.3 → (11월) 151.8
  - \* 원/엔 환율(원) : ('23.1월) 945.9 → (4월) 989.2 → (5월) 947.7 → (7월) 908.3 → (11월) 870.2

□ (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속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안 발표

-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금리 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유연한 운용'을 결정('23.10월)
  -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 폭 상한(YCC)을 1%로 유지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일정부분 초과용인을 결정
    - \* 이는 美 연준의 고금리 기조 지속 및 엔화 가치 하락세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
- (산업정책)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노력, 디지털을 활용한 행정·재정 개혁,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을 강조

**【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23.6월)' 주요 내용 】**

중점분야	주요 내용
국내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탄소화) 150조 엔 규모의 국민 협력 GX 투자 실현을 위해, GX 법안을 근거로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과 지원 제도를 정비</li> <li>· 또한, 건축물 벽면 등에 부착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형 태양전지 등 일본發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li> <li>· (중점산업) 반도체, 바이오, 퓨전에너지, AI 등 분야에 예산, 세제, 규제외 모든 면을 개선, 투자 유치 지원 패키지를 구성</li> <li>· (관광, 인바운드) 인바운드 확대 액션플랜에 근거, 비즈니스, 교육·연구, 문화 예술·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시장 규모를 확대</li> <li>· (농림·수산업)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가속, 투자 촉진</li> </ul>
디지털 활용 행정·재정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디지털 기반을 설계하고, 주민/사업체와 직접 접점을 지닌 지자체 /NPO가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혁 실시</li> <li>⇒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여권 '마이넘버' 필수화</li> </ul>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사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여성판 골태 방침 2023' 기반, 여성의 일하는 환경 정비, 남녀간 임금 격차 시정, 기업에서의 고용 촉진 등 지원</li> <li>· (고령자) 사회적으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li> </ul>

\* 자료원 : 일본 내각부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중시 정책 수행
  - (통상환경) IPEF, CPTPP 등 국제규범에 근거한 국제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본과 주요국 간 연대를 강화
    - IPEF를 통해 ①무역, ②공급망, ③인프라·탈탄소, ④반부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참가국 간 협력 강화 추진
      - \* (참가국)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피지 총 14개국('23.10월 기준)
    - '23.5월 각료급 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의 실질 타결을 발표했으나 11월 개최된 IPEF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부문에 한해 합의 도달 실패
  - CPTPP를 통해 '24년 하반기 영국의 회원가입을 발표하고 개방도 높은 무역 규범을 통해 회원국 간 유대 및 협력강화 계기 마련
    - \* 발효 완료국('23.9.) :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
    - \* 가입 신청국 : 중국('21.9.), 대만('21.9.), 에콰도르('21.12월), 코스타리카('22.8월), 우루과이('22.12월)
    - 그 외 CPTPP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규칙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 관세 철폐율은 96% 수준
  - (공급망)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22.5월) 이후 개정안 입법 추진 등을 통해 고도화 돌입
    - 「'24년도 예산안」과 「새로운 경제대책」을 통해 일본에 투자하는 첨단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 중

### 【 日 경제안보법의 주요내용과 시행 시점 】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인화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	· 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 계획 승인 및 지원조치 · 첨단 중요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자금 지원 · 민·관 협의회 설치, 연구업무 위탁 싱크탱크 설치	기시행
기간 인프라 사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특허출원 비공개	· 중요 기간 인프라 도입 및 유지관리 등 위탁에 대한사전 심사, 권고/명령 등 조치 ·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민간특허 비공개 및 외국출원 제한	시행 예정 ( '24년 봄)

\* 자료원 : 일본 내각부

- (산업환경) DX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로 통신용 기기, 시스템 반도체, 보안 관련 제품·솔루션 등 유망
  -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23.5월)」 개정안을 발표하며, 순환경제, 회복탄력성 높은 사회 구축을 위해 차세대·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도모하고 디지털 기반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또한 8월에는 「’24년 경제산업정책 중점안」을 발표하며, 최첨단 디지털 분야에 대한 국내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유도

**【 ’24년 경제산업정책 중점안 - DX부문 주요내용 】**

분야	주요 내용
반도체	· 최첨단 반도체, 부품소재, 장비 등 제조기반 정비 ·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 드론 항로 및 자율주행 지원도로 설정 등
생성형 AI	· 생성형 AI 기반 독자 언어모델 개발, 이를 위한 데이터 정비 추진 · 도쿄권, 오사카권 외 제3, 제4 데이터센터 핵심거점 정비 ·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인재 육성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 이에 따라 반도체, 네트워크 기반 등 DX에 필요한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과 생성형 AI 등 차세대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방침
- ’24년 경제산업정책 중점 안에 기반하여 DX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산업 연관 제품, 즉 데이터센터용 통신용기기, 반도체 제조 장비, 네트워크 장비, 보안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수출이 유망

**유망 품목**



- ▶ (통신용 기기) 일본의 ’23.1~8월 對한국 수입 1억불 규모, 전년동기대비 37% 수입 증가
  - 일본의 해당품목 對세계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6% 감소
-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23년은 수요 감소 추세였지만, ’24년 호조 전망
  - 일본의 ’23.1~8월 對한국 수입은 15% 감소했으나, 해당기간 對세계 수입 감소(△28%) 대비 감소폭이 적음
- ▶ (보안 관련 제품·솔루션) DX 관련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확대로 보안 관련 수요 다대
  - 한국은 사이버보안 강국 이미지로, 일본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 [증가 예상 품목] 반도체, 이차전지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생산 확대 및 일본 DX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li> <li>일본의 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 노력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li> </ul>
이차전지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탄소, 자동차의 전동화 트렌드가 '24년에도 지속될 전망</li> <li>전동 골프카트용 한국산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입 증가 예상</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일반/정밀기계, 화장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정밀기계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EV, 탈탄소 등으로의 대형 산업 전환이 시작되며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li> <li>* '24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2.3% 늘어날 것으로 전망 ('23.9월 각부와 재무성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li> </ul>
화장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류의 일상화로 일본 내 한국 화장품 인기가 지속, '22년 한국 화장품의 對일본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5% 증가한 3,318억 엔으로 점유율 23.4%를 기록하며 전통 화장품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수입국 등극</li> <li>* '23.1~6월 일본의 對한국 화장품 수입 450.3억 엔, 전년동기대비 20.7%↑, 점유율 25.6%로 1위</li> </ul>

### □ [감소 예상 품목]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생산량은 중국 내수 경제 부진으로 '24년에 0.3% 감소 전망</li> <li>'23년에 석유화학 플랜트의 정기 수리가 끝나면서 '24년부터 일본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원료 수입도 줄어들 전망(경제산업성)</li> </ul>
평판디스플레이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당시 가전, IT 제품 수요 확대로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22년부터 수요 감소세 지속</li> <li>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개인소비도 부진한 상황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아짐에 따라 TV 등 가전, IT 제품 교체 기간 길어지는 추세</li> <li>* 실질임금, '23.9월까지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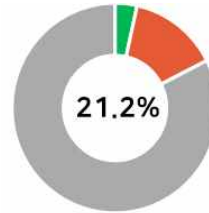
## 5 동남아대양주

◆ '24년 한국의 對동남아대양주 수출은 아세안으로의 중간재 수출 회복과 대양주 경기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아세안·대양주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아세안·대양주 수출 비중('23년) 】



- 아세안 비중 : 17.0%
- 대양주 비중 : 4.2%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23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24년에는 신규 주문 증가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
- (아세안)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로 신규주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4년 아세안 경제는 4.6% 성장할 전망
- (대양주) '24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24년을 저점(1.2%)으로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전망

【 ASEAN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전년대비, %) 】

국가('24년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sup>e</sup>	2024년 <sup>f</sup>	2025년 <sup>f</sup>	2026년 <sup>f</sup>	2027년 <sup>f</sup>	
아세안	캄보디아	3.0	5.2	5.6	6.1	6.4	6.5	6.2
	필리핀	5.7	7.6	5.3	5.9	6.1	6.2	6.3
	베트남	2.6	8.0	4.7	5.8	6.9	6.8	6.8
	인도네시아	3.7	5.3	5.0	5.0	5.0	5.0	5.0
	말레이시아	3.3	8.7	4.0	4.3	4.4	4.4	3.9
	라오스	2.1	2.3	4.0	4.0	4.1	4.2	4.3
	브루나이	-1.6	-1.6	-0.8	3.5	2.8	3.0	3.1
	태국	1.5	2.6	2.7	3.2	3.1	3.0	3.0
	미얀마	-17.9	2.0	2.6	2.6	2.5	2.6	2.9
	싱가포르	8.9	3.6	1.0	2.1	2.5	2.5	2.5
	아세안	3.2	5.7	4.2	4.6	4.8	4.8	4.8
대양주	호주	5.2	3.7	1.8	1.2	2.0	2.2	2.3
	뉴질랜드	6.1	2.7	1.1	1.0	2.1	2.2	2.4
	대양주	5.3	3.5	1.7	1.2	2.0	2.2	2.3

\* 자료원 : IMF 경제전망('23.10월)

- (아세안) 내수 활성화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및 친환경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
  - (생산) '23년 3분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가 점진적 완화되면서 제조업 경기 개선
  - (소비)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관광업 호황에 힘입어 소비심리 강세
  - (투자) 미·중 분쟁 심화로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아세안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으며, 국가별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도 활발
  - (고용) FDI 증가 및 관광업 활성화로 고용시장 안정화
  - (정책) 고금리 유지 속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증가 전망
    - (통화정책) '23년, 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파른 금리인상이 지속됐으며, 향후 추가적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
      - \* 역내 대표국 기준금리('23.11월 기준) : (베트남) 4.5%, (인도네시아) 6.0%
    - (산업정책)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투자 증가세
- (대양주) 인플레이션 완화 및 ESG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 (생산) 산업생산지수는 러-우 사태로 인한 석탄 및 가스 공급 확보 이슈로 광업 및 제조업 주도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소비) 인플레이션 둔화가 관찰되나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24년 가계소비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 \* '24년 호주 가계소비 증감률 전망(FitchSolution) : 2.0%
  - (투자) 서비스 수출이 회복되고 광업 분야 활동이 재개되며 기업투자는 '24년 약 2~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고용) 현재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4년 실업률은 기술인력 수급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 등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
    - \* '24년 실업률 전망 : (호주) <sup>(24.6.)</sup> 4.25%, (뉴질랜드) <sup>(연간)</sup> 4.8%
  - (정책)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ESG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통화정책)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 \* 기준금리('24.11월) : (호주) 4.25%, (뉴질랜드) 5.5%
    - (산업정책) 탈탄소 정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 인프라 관련 정부 투자 확대
      - \* 호주와 뉴질랜드는 '30년까지 국가 전체 발전량의 각각 82%,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 수립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아세안) 수입규제 강화 및 핵심 원자재 수출제한을 통한 투자유인 등 보호무역이 심화되는 추세
  - (무역·통상환경) 자국 산업 보호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수입 규제 강화 추세
  - (공급망) 풍부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바탕으로 자원 수출제한을 통해 다국적 제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추진

**【 동남아대양주의 10대 핵심광물 매장량('22년 기준) 】**

10대 광물	수요 예측	용도	전세계 대비 매장률(%)		
			아세안	호주	동남아대양주
니켈	공급부족	배터리 양극제	31.4	25.6	57.0
리튬	공급부족('35년 이후)		23.8	23.8	47.6
코발트	공급부족		10.4	18.1	28.5
망간	타이트한 수급 지속		0.3	15.9	16.2
희토류 (5종)	타이트한 수급 지속	영구자석 연마제	17.6	3.2	20.8
흑연	공급초과	배터리 음극제	-	-	-






\* 자료원 : USGS(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3, Wood Mackenzie)

- (산업환경) 지속가능발전 및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부문 건설 수요 증가세
- (대양주) 교역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급망·국제협력·국방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전망
  - (무역·통상환경) 호-중 수교 50년을 맞아 호주와 중국 간 무역분쟁 분위기가 완화되며 남아있는 교역 제한 조치도 점차 해제될 전망
  -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 속에서 호주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해 '30년까지 세계 핵심 광물 강국으로 도약 목표
  - (원자재) 2022-23년, 호주 원자재 호황 정점 도달 후 2023-24년 내림세 전망
  - (산업환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확대 전망
    - '24년 연방 예산안에서 10년 계획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규모를 1,200억 호주 달러(759억 美달러)로 책정했으며, 특히 운송 및 인프라 분야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780만 호주 달러(493만 美달러) 투입
    - '24년 호주 연방정부 예산에서 역사상 최대 국방예산(332억 달러)을 책정하며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확장 전망
    - 친환경 모빌리티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 호주 정부는 '국가 전기자동차 전략'을 발표하며 친환경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23.4월), 뉴질랜드 정부는 전국에 100개의 공공 EV 충전기 추가 설치 계획 발표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① ASEAN


□ [증가 예상 품목] 화장품, 철강제품, 반도체, 일반/정밀기계, 자동차부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화장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콘텐츠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과 한국식 화장법 인기</li> <li>• 할랄 인증 제품 진출 확대 시, 수출에 긍정적 영향 기대</li> </ul>
철강제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및 제조업 시설보수 수요가 확대되며 건설용, 설비용 철강 수요 증가</li> <li>• 하지만 최근 중국, 태국산 철강제품과 가격경쟁 심화 추세</li> </ul>
반도체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경기가 점차 활성화되며 전자제품과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li> <li>• 주요 전자기업 및 반도체 기업의 脫중국 → 對베트남 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li> </ul>
일반/정밀기계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對아세안 FDI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로 제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며 신규설비 투자가 확대</li> <li>* 베트남의 FDI는 '23.9월 누계, 20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7.7% 증가)</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현지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수입수요 확대</li> </ul>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석유화학, 이차전지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회복으로 산업·내수의 근간인 석유화학 수요 증가세</li> <li>• 반면, 아세안 주요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효과 상쇄</li> </ul>
이차전지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시장 및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 하며 관련 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li> <li>• 초기에는 유관기자재가 한국에서 조달되며 수출이 증가했으나, 현지 증산 확대로 수출 변동폭은 미미할 전망</li> </ul>




□ [감소 예상 품목] 섬유류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국가별 섬유산업 자급률 증가세 및 자국산업 보호조치</li> <li>*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의류 분야에 대한 세이프가드 2건 시행 중</li> <li>• 글로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비필수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② 대양주



### □ [증가 예상 품목] 자동차, 화장품, 석유제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 정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가 혜택 세금 면제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도 높아질 전망</li> <li>* 자동차는 호주 수입의 12.4%를 차지. '22년 자동차 단독 수입액은 192억 달러로 '21년보다 9.3% 증가</li> </ul>
화장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의 뷰티 및 퍼스널케어 제품은 '23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4.19%(CAGR) 성장 전망</li> <li>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 물질이나 피부 자극 등 부작용에 대한 인식 높아지며 유기농 제품 선호</li> </ul>
석유제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의 '23년 정유 생산량은 정유소 유지보수 작업과 가동 중단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할 전망이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정제 연료 수입 증가 전망</li> <li>* 호주의 정제 연료 수입량은 '22년 하루 73만 8,000배럴에서 '23년 80만 5,000배럴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100만 배럴까지 증가 전망</li> </ul>

###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일반/정밀기계, 철강제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정밀기계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부문에서 기술혁신으로 정밀 농업과 자동화를 위한 기계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li> <li>호주의 자동화 자재 취급 장비에 대한 수요는 '23년부터 '30년까지 연간 성장률 9.3%로 12억 4,500만 달러에 이를 전망</li> </ul>
철강제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 내 주택 건설 및 인프라 산업 확대에 철강 수요 증가 전망</li> <li>호주와 중국의 무역 관계 완화로 호주의 對중국 수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호주의 철강제품 수입 중 중국산이 50% 이상 차지)</li> </ul>

### □ [감소 예상 품목]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부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지출 감소로 신차 구매 대신 차부품 교체율 증가</li> <li>간접비가 낮은 중국산 수입품을 선호 현상으로 수출 감소 가능성</li> </ul>
무선통신기기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시장의 전반적인 소비자 수요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li> <li>중국산 저가 브랜드 성장세로 우리 기업의 점유율 하향세</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6 인도

◆ '24년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루피화 가치하락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도 인도의 제조업 육성책 및 소비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및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루피화 평가절하 속 안정적 생산과 소비에 힘입어 6.3% 고속 경제성장 전망
  - (경제) '24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호조 및 농업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신흥경제권 중 가장 높은 6.3% 경제성장 전망(IMF, '23.10월)
    - \* 인도 경제성장률(%) : ('19년) 3.8 → ('20년) △6.0 → ('21년) 9.2 → ('22년) 7.3 → ('23년) 6.5 → ('24년) 6.3
  - (생산)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24년에도 확장세 계속
    - 인도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28개월 연속 50 이상 유지 중이며('23.10월 기준), '24년에도 신규 주문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제조업 활성화 전망
      - \* 인도 제조업PMI 지수(p) : ('23.1월) 55.4 → (3월) 56.4 → (5월) 58.7 → (7월) 57.7 → (9월) 57.5 → (10월) 55.5
      - \* 인도 IIP(산업생산) 증가율(%) : ('23.1월) 5.2 → (3월) 1.7 → (5월) 5.2 → (7월) 5.7 → (8월) 10.8
  - (소비)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확산이 구매력 확대로 이어져 민간소비 증가 전망
    - \* 소비자신뢰지수(CCI, p) : ('23.1월) 84.8 → (3월) 87.0 → (5월) 88.5 → (7월) 88.1 → (9월) 92.2
    - \* 인도 NNI(순국민소득) 증가율(%) : (FY19/20) 5.1 → ('20/21) △4.0 → ('21/22) 16.9 → ('22/23) 16.0
  - (투자) '24년 세계 경제 회복 및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전자·화학·자동차 등 인도의 주요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전망
    - \* 인도 FDI(억달러) : ('18) 443 → ('19) 499 → ('20) 593 → ('21) 587 → ('22) 460 → ('23.4~6월) 109

- (고용) '24년 제조업 확장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실업률이 6~7%대로 완화될 전망
  - \* 인도 실업률(%) : ('23.1월) 7.1 → (3월) 7.8 → (5월) 7.7 → (7월) 7.9 → (9월) 7.1 → (10월) 10.0
- (환율) 원유·천연가스 등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며 루피화 가치하락 지속 전망
- (정책) 고금리 유지 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제조업·인프라 지원과 더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산업(전기차·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환경규제 병행
  - (통화정책) 인도 중앙은행(RBI)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6.5%대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기준금리(%) : ('21.2월) 4.00 → ('22.2월) 4.00 → ('22.8월) 5.40 → ('23.2월부) 6.50
  - (재정정책) '24년에도 경기부양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
    -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 지원 및 포괄적 성장(농민·저소득·여성·청년) 위해 7~10%대의 예산규모 확대 전망
      - \* 예산안 규모(조 루피) : (FY21/22) 34.8 → ('22/23) 39.4 → ('23/24) 45.0
  - (산업정책) Make in India 2.0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개선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제조업 육성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수입의존도·실업률·경제성장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조업의 GDP 기여율 2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
      - \* 제조업 GDP 기여율(%) : ('20년) 18.3 → ('21년) 18.7 → ('22년) 17.7 → ('23년, f) 17.5
    - 대도시의 극심한 대기오염과 원유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요구에 발맞춰 '전기차 전환' 확대
    - FAME\* I('15년)·FAME II('19년)·PLI\*\*('20년) 등 정부 정책 및 수요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배터리 기술개발, 충전 인프라 확장 등 동시 진행
      - \* FAME(Faster Adoption and Manufacturing of Hybrid and Electronic Vehicle) : 하이브리드·전기차 적용 및 제조 계획
      - \*\*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s) : 생산연계 인센티브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24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인도의 대외 교역환경은 회복되었으나,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수출입통제 지속 전망
- (무역환경) '23.4~9월 교역액은 5,3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하였으나, '24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교역규모 소폭 상승 전망
  - 교역 상위국은 ①미국 ②중국 ③UAE ④사우디 순이며, 한국은 인도의 22위 수출국이자 8위 수입국
    - \* 인도의 對세계 주요 수출입품(FY22/23) : (수출) 정유, 의약품, 통신기기 등 (수입) 원유, 석탄, 석유가스 등
- (통상환경) 자국 제조업 육성과 중국산 수입의존도 완화 그리고 무역적자 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 對韓 무역구제\* 관련 신규조사 개시 건수는 '20년 이후 코로나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2년 하반기 이후 신규조사\*\* 증가 추세
    - \* 수입국이 무역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일종
    - \*\* 對韓 무역구제 신규조사 개시 건수 : ('20년) 15건 → ('21년) 7건 → ('22년) 8건 → ('23년) 6건
  -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금지 조치 및 수출세 부과 등 적극적 수출통제 전망
  - 인도는 농업대국으로, 농림축산물 수출규제 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품목 수출규제 모니터링 필요
    - \* '23.8월, 인도는 양파 및 반숙미에 수출 관세부과를 조치
  - 또한, 인도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 적극 활용
  - '23.8월,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IT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표하였으나, 수입량 급증 및 현지업체 반발에 단순 수입 등록절차로 완화('23.11월부)
    - \* Apple, Dell, HP 등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인도 정보기술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해 인도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치연기 요청





- (산업환경)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제조업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전망
  - (자동차) 세계 3위 판매국이자 4위 생산국으로 부상한 인도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계의 설비투자 확대 및 이륜차 중심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마루티스즈키·현대차·르노인디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내 설비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증가
  - (IT) 서구 국가들이 IT 관련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며 발전한 인도의 대표적인 수출주력 산업으로, '24년에도 지속 확대 전망
    - IT분야는 GDP의 7.5% 차지(FY22/23)하며, 전체 산업 규모는 약 2,4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7.9% 증가했으며, 수출은 연간 1,940억 달러 규모(인도 전자정보통신부)
  - (인프라) 인프라 부흥 계획\*을 통해 수로·항만·회랑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
    - 모디 총리는 핵심 인프라인 도로·철도·항공·대중교통·해운·물류에 '25년까지 약 100조 루피(1.3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을 발표
      - \* 기존 국가인프라구축계획(NIP) 사업을 포함하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리더십 아래 16개 중앙부처, 주정부 및 민간분야 인프라 사업 통합 관리
  - (소비재) Amazon India, Flipkart, Jio Mart, CLIQ, Big Basket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인도 소비재 시장의 새로운 관문으로 등극했으며, 특히 패션·의류 및 식료품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중
    - \* 아마존인디아(美아마존), 플립카트(美월마트), 印릴라이언스(지오마트), 印타타(클릭·빅바스켓) 등 글로벌 기업과 인도 자국 대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점 각축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증가 예상 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일반/정밀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2륜, 3륜, 4륜 포함)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li> <li>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이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전망</li> </ul>
자동차부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기업의 탈레가온 공장 인수 및 '25년 본격 양산을 통한 인도 전역 100만대 생산체제 구축 예정인바, 자동차 생산 확대에 따른 관련 부품 수출 증가 전망</li> </ul>
평판디스플레이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기업의 모니터 신제품 라인업 및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플립 Z5, 폴드Z5)에 따른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li> <li>다양한 OTT 또는 소셜 미디어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스마트 TV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li> </ul>
이차전지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는 이차전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륜 전기차 업체(OLA, ATHER, TVS 등)가 한국산 이차전지 수입 중</li> <li>이외에도 2024년 스마트폰·랩탑 등 전자부품 생산·소비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이차전지 수출 대폭 증가 전망</li> </ul>
일반/정밀기계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및 제조업 활황에 기초산업기계, 원동기, 공기조절기, 냉방기 등 일반/정밀기계 수출 증가 전망</li> <li>기계요소, 공구, 금형 또한 수출 소폭 증가 전망</li> </ul>
석유화학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및 인프라 확대에 따라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합성 수지, 고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li> <li>인도, 건설 및 농업 부문 수요로 에틸렌 및 PVC 원료 수요 양호</li> </ul>
반도체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경기 회복 및 반도체 단가 회복에 따라 '24년 對인도 반도체 수출 소폭 증가 전망</li> <li>인도의 주요 반도체 수입업체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24년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전망</li> </ul>

□ [감소 예상 품목]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심화, 인도 자국 철강생산량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 철강제품 수출 소폭감소 전망</li> <li>'23년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월 800만 톤 수준이며, 인도의 중국산 철강 수입 증가세 (타타스틸 CEO)</li> </ul>
무선통신기기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어텔, 릴라이언스 Jio 등 현지 통신사 5G 서비스 보급 진행 중으로, 공격적인 5G 통신장비 수입 수요 감소</li> <li>중국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업계소식에 따라 선제적 구매 심리 위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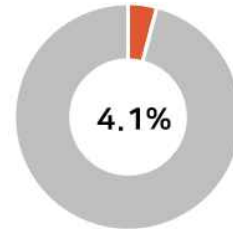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7 중동

◆ '24년 한국의 對중동 수출은 고유가 기조에 따른 흑자재정으로 역내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며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중동 수출 비중('23년) 】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24년 경제성장률 3.4%로 '23년 대비 1.4%p 상승 전망(IMF, 10월)

○ (생산) 신규 주문 증가 및 인플레이션 완화와 고용 개선으로 非석유산업·제조업 부문의 PMI 개선

- GCC(걸프협력회의)\*는 UAE\*\*와 사우디 등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활성화로 생산증대 기대

\*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 UAE 구매자관리지수는 <sup>(23.10월)</sup> 57.4로 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신규 사업 반등 신호

○ (물가) '24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전년 대비 2.5%p 감소 전망(IMF, 10월)

- 러-우 사태로 심화된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나, 세계 인플레이션(4.3%) 대비 아직 높은 수준

\* 중동 물가상승률(%) : <sup>(21년)</sup> 14.0 → <sup>(22년)</sup> 14.4 → <sup>(22년)</sup> 17.5 → <sup>(24년)</sup> 15.0

- 역내 대표 제조업 국가인 이집트와 튀르키예의 통화 약세로 인한 투입비용과 생산가격 상승 등 하방 압력 속에도 인플레이션 둔화 및 고용 증가 등 제조업 부문 안정화 징후 관찰

○ (유가) '24년 유가는 OPEC+의 감산 기조 유지와 러-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영향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며 배럴당 평균 80달러 후반 상회 전망(EIA)

- 전쟁 확산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대내외 긴장이 고조되며 당분간 변동성 심화 전망

- (정책)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및 외교 다변화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 (재정정책) 유가 변동성 확대 속 정부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세수 확대
    - (UAE) 연방 법인세(9%~15%) 신규 도입('23.6월부)
    - (튀르키예) 재건 자금 확보를 위한 신규 법인세 도입('23.7월부) 및 세금 인상('23.7월)
  - (산업정책) 중장기 국가비전을 통해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추진
    - (사우디) 'Vision 2030'의 일환으로 국가산업전략 추진을 통한 산업기반 육성
    - (UAE) 'Make it in the Emirates' 및 'Industry 4.0 이니셔티브' 연계 스마트 제조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 현지 제조업 활성화·고도화 추진
    - (이집트) 지속가능개발정책 'SDS 2030'의 일환으로 핵심부품의 자체생산 인프라 및 스마트 제조라인 구축 추진
    - (튀르키예) '24-'26년 중기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혁신 및 고부가가치 창출
    - (요르단) '23-'25년 경제 현대화 3개년 비전 프로그램 추진
  - (투자유치) 기업활동 여건 개선 및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유치 적극 확대
    - (사우디) 중동지역본부 유치 정책 도입('24.1월부) 및 신규 경제특별구역(SEZ) 4곳 지정('23년)을 통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요르단) 투자환경법 시행('23.1월)을 통한 Fast-Track 제공 및 인센티브 확대
  - (에너지 효율화) 중동 탄소중립 저변 확대에 따른 에너지믹스 및 탄소 순환 경제 촉진으로 전기차, 폐기물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UAE) 최초 통합에너지 전략 '국가 에너지 전략 2050' 개정안 발표('23.7월)
      - \* '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 추진 및 국가수소전략 발표('23.7월) 등
    -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해 '60년까지 넷제로 달성
    - (이스라엘) 그린세 적용 및 친환경 등급에 따른 자동차 구매세 차등 부과
    - (요르단) '20-'30년 국가 에너지 전략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제고
    - (알제리) '수소개발로드맵'을 통해 블루·그린수소 개발 주력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역내 제조업 육성 및 현지화 정책 강화를 통한 수입의존도 감소와 함께 대외정책을 통한 무역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중동 제조업 활성화에 따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
    - 역내 주요 제조 국가인 튀르키예, 이집트, 이란은 제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GCC는 스마트 제조를 통한 新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 기존 에너지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방산, 기계, 자동차 등 다국적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자체 생산 인프라 구축
  - 자국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산품 대상 규제 강화 및 현지화 요건 확대
    - 걸프표준화기구(GSO) 통합인증인 G-마크 인증 대상 지속 확대 및 별도로 UAE와 사우디 등 개별국가 강제 인증까지 추가로 요구
      - \* 식품, 소비재, 산업재 등 광범위한 규제 확대와 환경규제 등 기술장벽(TBT) 강화
  - 대외정책을 통한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과의 무역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
    - 사우디, UAE, 이란, 이집트 중동 주요국의 BRICS\* 가입('24.1월부)으로 무역, 물류 및 공급망 다변화 등 파트너십 강화
      -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신흥경제국 협의체
    - 중동 Look East 정책 확대에 따른 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
      - \* '23년 UAE는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한국과 CEPA를 체결했으며, GCC 권역 단위로 일본·중국·영국 등과도 FTA 체결 관련 협의 중







### 【 한-UAE CEPA 주요 내용 】

- ▶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상품무역 품목 10년 내 관세 철폐\*
  - \* (한국) 92.8%, (UAE) 91.2% / 원유 수입 관세(3%), 10년 내 철폐
- ▶ 게임·영화 등 콘텐츠, 의료 서비스 무역 개방
  - 온라인 게임,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및 시청각 서비스의 UAE 기체결 FTA 최고 수준 개방
- ▶ 에너지·자원·스마트팜·바이오·디지털 부문 경제협력 강화
- ▶ 한국 공급자에 대한 조달계약 차별적 대우 금지 등 정부조달 협력


- (산업환경) 산업다각화에 따른 非석유산업·신산업 육성 가속화
  - (인프라) 인구 증가와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인프라 수요 확대
    - '23년 중동 내 발주된 프로젝트 중 건설·교통·전력·수자원 등 하드 인프라 프로젝트가 전체 발주의 60% 이상 차지
    - 하드 인프라(건설·교통·공공시설 등) 및 소프트 인프라(의료·교육·학교 등) 수요 증가 및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확대
  - (석유·가스)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러시아산 대체 공급처로 부상하며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개발 지속
    - (석유) 중동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2%, 생산량의 36%를 차지하며, 중동 전체 수출의 40% 및 전체 전력 생산의 22%를 차지
    - (가스) 중동 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3%를 차지하며 중동 전체 수출의 10% 및 전체 전력 생산의 72% 차지
      - \* (사우디) 자푸라 가스전, (UAE) 하일안가샤 가스전, (카타르) 북부가스전 증산 프로젝트 등 메가 프로젝트 다수 진행
      - \* UAE 170억 달러 규모 하일안가샤 가스전 사업에서 삼성ENG가 컨소시엄 OBE 방식으로 수주('23.1월)
  -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천연자원 재사용, 폐기물 감소 초점
    - '25년까지 1,800억 달러를 투자해 재생에너지 용량을 '23년 대비 18배 이상 확대
    - 태양광 수요가 가장 높으며 이외 수소 액화·생산 플랜트 설치 및 폐기물 프로젝트 등 관련 개발 수요 또한 대폭 확대
      - \* 중동은 그린·블루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해 경쟁력이 높으며, 특히 UAE, 사우디, 오만, 알제리, 이집트 등 수소 경제 확대 주력
    - 또한, 유엔기후변화회의 COP27(이집트, '22년)·COP28(UAE, '23.11월)가 중동에서 연속 개최되며 탄소중립 움직임 가속화 전망
  - (방산)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 및 역내 경쟁 지속에 따른 방산 투자 확대
    - 중동지역의 국방비 지출은 '23년 2,3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국방 관련 투자는 '23년 총 435억 달러로 전체 재정지출의 18% 차지
    - 중동은 전 세계 무기 수입시장 내 시장점유율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무기류 수요 증가 전망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증가 예상 품목] 일반/정밀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정밀기계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가스 생산시설 확장과 산업 고도화 계속, 新 2050 국가 에너지 전략 달성을 위한 수소 외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발주 대폭 확대</li> <li>건설, 플랜트 전반 호황 및 기계류 수요 지속 전망</li> </ul>
자동차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부정적 요인 확대에도 역내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차량 수요가 꾸준</li> <li>특히 전기차 신차 수요 급증과 요르단, 리비아, 사우디 등 중고차 수요가 급증함. 단, 중동 내 중국산 저가 자동차 및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경쟁력 심화 전망</li> </ul>
반도체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제조업 기반이 미비해 제조업 활용 반도체 수요는 제한적이나 첨단산업·그린 산업·ICT 관련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발주, 관련 수요 기대</li> </ul>
철강제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건설, 물류 외 전·후방 산업 경기 호조로 철강판, 철구조물 외 역내 수요 확대</li> <li>또한, 튀르키예, 리비아, 이스라엘, 모로코 등 재건 사업 기회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li> </ul>
화장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對중동 한국산 화장품 수출은 최근 10개년 모두 두자릿 수의 증가세 기록 중</li> <li>기초화장품부터 색조화장품까지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K콘텐츠 유명세에 따른 뷰티품목 수요 동반 상승</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산 중고차 수요 확대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동반 상승</li> <li>또한, UAE와 체결한 CEPA 발효 시 즉시 관세 철폐 품목으로 수요 증가 전망</li> </ul>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석유화학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생산 확대에 의한 공급 과잉, 세계 경기 위축에 기인한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장기화 우려로 재고 소진 노력</li> <li>우리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 재활용이나 바이오 소재의 친환경 플라스틱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전환 추세</li> </ul>

□ [감소 예상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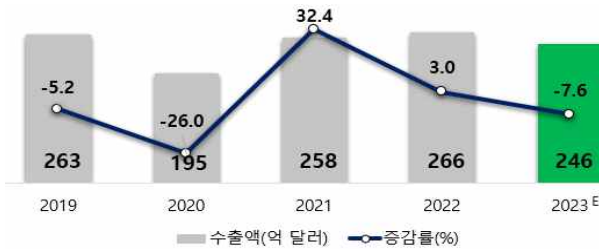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대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한국 평판디스플레이 최대 수출국인 對이집트 수출은 '23.9월 누계 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li> <li>LCD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패널 단가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재고 소진에 집중 전망</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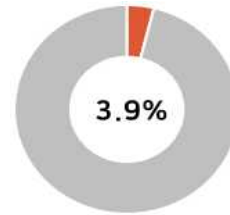
## 8 중남미

◆ '24년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3高(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니어쇼어링 확대 및 원자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비중('23년) 】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高물가·高금리에 따른 급격한 긴축 정책 속 '24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2.3% 전망(IMF, '23.10)

\* 중남미 경제성장률(IMF 10월, %) : ('22년) 4.1 → ('23년<sup>e</sup>) 2.3 → ('24년<sup>f</sup>) 2.3

○ 다만, 미·중 경쟁으로 인한 니어쇼어링 등 반사이익, 경기부양 정책, 중국 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원자재 수출 증가 등은 경기 상방요인으로 잔존

【 중남미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전년 대비, %) 】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sup>e</sup>	2024년 <sup>f</sup>
소비자물가	9.8	14.0	13.8	10.7
민간소비	7.6	5.6	1.3	2.5
공공소비	4.0	1.5	0.9	0.6
고정투자	17.3	4.6	0.0	2.4
수출	8.3	7.1	3.1	4.4
수입	18.3	7.7	1.3	4.5

\* 자료원 : World Bank('23.6월), IMF('23.10월)

○ (소비) 인플레이션 압력 속 여행수요 증가 및 역내 통화 완화 정책 효과로 '23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투자) 경기악화에 따른 기기 교체 시기 장기화로 고정투자 둔화세를 보이나, 니어쇼어링을 비롯한 반사이익 효과로 향후 투자 증가 전망

○ (교역)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식품, 광물 등의 원자재 수출 증가로 인한 교역량 증가 전망



- (정책)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성장 도모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둔화 및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전망
    -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주요국들은 시장 전망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이자 부담에 따른 기업의 고용 축소 가능성과 같은 경기침체를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조치

**【 중남미 주요국 금리인하 동향(%) 】**

- ▶ 브라질 : (23.8월) 13.75 → (9월) 12.75 → (11월) 12.25
- ▶ 칠레 : (23.7월) 10.75 → (9월) 9.25 → (10월) 8.75
- ▶ 페루 : (23.9월) 7.5 → (11월) 7.25 → (11월) 7.0

- (재정정책) 저성장 타개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정책 확대
  - 양극화 해소,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및 인프라 개선·확대를 위한 '24년 정부 예산 증액

**【 중남미 주요국 경기부양 정책 사례 】**

- ▶ 브라질 : 교통, 수자원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신성장가속화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향후 4년간 정부예산 720억 달러 투입 예정
- ▶ 멕시코 :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24년 242억 달러 배정
- ▶ 페루 : 보건, 교통, 통신 등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국가인프라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22년-'25년간 366억 달러 투입 예정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FTA 체결 확대 속 글로벌 생산기지과 공급망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 (통상환경) 기존 한-중남미 FTA에 더해 '24년 추가 발효 예정인 FTA로 국내 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 \* '24년 추가 발효예정 FTA :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23.9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23.10월)

발효(8개국)	협상 타결(2개국)	협상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에콰도르, 과테말라	남미공동시장, 멕시코

- (원자재) 리튬을 둘러싼 역내 국가들의 자원 국유화 확대
  - 이차전지의 급부상으로 인해 '리튬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가 재부상하며 각종 국유화 조치가 단행되고 있음
  - \* 리튬 트라이앵글 : 전 세계 리튬의 58%가 매장되어 있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지역

**【 중남미 리튬국유화 조치 사례 】**

- ▶ 아르헨티나 : '23년, 라리오하주는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리튬 채굴권을 전면 정지
- ▶ 칠레 : '23년, 보리치 대통령은 자국 경제의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국유화 희망을 선언
- ▶ 볼리비아 : 국영리튬기업의 엄격한 관리감독 준수가 우유니 지역 리튬개발 사업 낙찰 조건
- ▶ 멕시코 : '22년,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으며 소노라 지역을 리튬 채굴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공급망) USMCA, IRA에 따른 역내비중 강화\* 조치로 철강 등 원부자재를 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면서 니어쇼어링을 통한 미국 인접국(멕시코 등)내 제조업 규모 확대 예정
  - \* 자동차 및 핵심부품 생산·제조시 투입되는 알루미늄 및 철강의 70%가 북미산 충족 필요

□ (산업환경) 에너지원 다변화 및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정책 강화

-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정책 강화
  - \* 최근, 중남미는 기후변화로 엘니뇨로 인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가 심각한 한편, 중남미 전지역의 수력 발전 비중은 42%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조





**【 중남미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확대 사례 】**

- ▶ 멕시코 : '24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35%를 청정에너지로 전환 계획
- ▶ 브라질 : '25년까지 온실가스를 37%, '30년까지 50% 감축 계획
- ▶ 칠레 : '24년까지 28개의 화력발전소 폐쇄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계획
- ▶ 콜롬비아 : '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 계획
- ▶ 페루 : '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발전량의 15%를 청정에너지로 전환 계획



- (디지털화) 중남미 각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5G 보급, 스마트 SOC,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관련 기술 수요 지속 증가 전망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증가 예상 품목] 일반/정밀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화장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정밀기계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주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기계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감. 특히 건설용 기계 장비는 수입산이 대부분이며 한국산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li> </ul>
철강제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멕시코) 니어쇼어링 및 인프라 프로젝트로 철강수요는 '24년에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li> <li>(브라질) 건설경기 호황으로 철강제품의 높은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환율과 재고량 등에 따라 수입수요 등락을 보임.</li> </ul>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산업 생산과 판매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한국산 자동차 부품과 경쟁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li> </ul>
화장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류의 영향으로 한국화장품 인지도가 높아지며 수요 증가</li> <li>다만, 복잡한 인증 절차 등 비관세장벽이 한국 화장품 현지 시장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li> </ul>

□ [유지(보합) 예상 품목]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멕시코) 반도체 산업의 아시아 국가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로부터 반도체 수입은 줄어들 수 있을 전망</li> <li>차량용 및 가전제품용 프로세서, 메모리 등 수입수요 증가</li> </ul>
무선통신기기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멕시코) 무선통신기기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li> <li>(칠레) 중국산 저가제품의 점유율 확대에 한국산 제품과 경쟁 심화</li> </ul>

□ [감소 예상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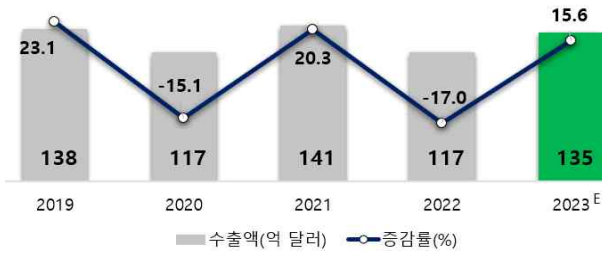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미국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멕시코의 미국 向 TV 생산량 소폭 감소 전망</li> <li>인플레이션 등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로 전자제품 수요 및 구매 감소</li> </ul>
섬유류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멕시코) '23년 8월부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법령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li> <li>(칠레) 경기침체로 재고누적이 늘어나며 신규 제품 주문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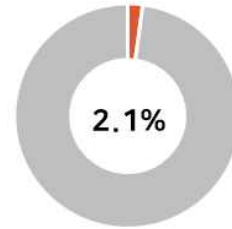
9 CIS

◆ '24년 한국의 對CIS 수출은 계속되는 대러 제재 속 CIS 주요국의 산업별 공급망 재편 및 투자 확대 기조로 전년 대비 보합 전망

【 한국의 대CIS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CIS 수출 비중('23년)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러-우 사태 장기화 속 공급망 재편 및 투자 확대로 '24년 CIS 지역 경제는 플러스 성장 전망
  - 러-우 사태 당사국의 경제는 방산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23년부터 반등하여 '24년 1~3%대 성장 예상
  - 중앙아시아 주요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러-우 사태 이후 주변국으로의 수요 확대에 기반해 4~5%의 경제성장 전망
  - 그 외 몽골(4.0%), 조지아(5.0%), 아제르바이잔(2.6%) 등 CIS 모든 국가가 '24년 플러스 성장 전망

【 CIS 국별 GDP 성장률(전년 대비, %) 】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sup>e</sup>	2024년 <sup>f</sup>
러시아	-2.6%	5.6%	-2.0%	2.3%	1.0%
카자흐스탄	-2.6%	4.1%	3.3%	4.5%	4.1%
우즈베키스탄	2.0%	7.4%	5.6%	5.4%	5.4%
벨라루스	-0.6%	2.2%	-3.6%	1.6%	1.3%
아제르바이잔	-4.2%	5.6%	4.5%	2.5%	2.5%
아르메니아	-7.1%	5.6%	12.6%	7.0%	5.0%
조지아	-6.7%	10.4%	10.1%	6.1%	4.7%
몽골	-4.5%	1.6%	5.0%	5.5%	4.5%
우크라이나	-3.7%	3.4%	-29.0%	2.0%	3.2%
몰도바	-8.3%	13.9%	-4.9%	2.0%	4.2%

\* 자료원 :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3)

- (소비) 대외 불안정 속 정부 주도 투자 확대 영향으로 소비 활력 유지
  -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3.10월 러시아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0.2% 증가하며 회복세
    - \* 러-우 사태 이후 가파른 물가상승 관련 러시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추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도소매 판매 증가율 또한 양호하며, 아제르바이잔은 1년 넘게 금지된 대형쇼핑몰 영업을 '23.6월부터 허용하며 자국 내 적극적인 소비 진작

**【 CIS 국별 소매판매 증가율(전년 대비, %) 】**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간	1/4	2/4	3/4	4/4	1/4	2/4
러시아	-4.1	7.3	-6.7	3.6	-2.7	-5.5	-6.7	-7.3	1.1
카자흐스탄	-4.1	6.5	2.1	-3.3	1.2	1.4	2.1	12.1	8.8
우즈베키스탄	3.5	11.7	11.8	10.6	9.5	10.4	11.8	5.2	6.9
벨라루스	1.8	1.6	-3.7	6.5	-0.4	-2.5	-3.7	-3.5	4.6
아제르바이잔	-1.3	3.2	3.1	3.1	2.9	2.9	3.1	3.0	3.0
우크라이나	8.4	10.7	-	-	-	-	-	-	-

\* 자료원 : CIS STAT('22년 이후 우크라이나 통계 미발표)

- 한편, 우크라이나는 치솟던 물가\*가 점차 안정되며 소비회복 기대 증가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대비, %) : <sup>(23.2월)</sup>24.9 <sup>(5월)</sup>15.3 <sup>(7월)</sup>11.3 <sup>(10월)</sup>5.3

**【 CIS 국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대비, %) 】**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sup>e</sup>	2024년 <sup>f</sup>
러시아	3.4	6.7	13.8	5.3	6.3
카자흐스탄	6.8	8.0	15.0	15.0	9.0
우즈베키스탄	12.9	10.8	11.4	10.2	10.0
벨라루스	5.5	9.5	15.2	4.7	5.7
아제르바이잔	2.8	6.7	13.9	10.3	5.7
조지아	5.2	9.6	11.9	2.4	2.7
몽골	3.7	7.4	15.2	12.3	12.3
우크라이나	2.7	9.4	20.2	17.7	13.0

\* 자료원 : IMF('23.10)

- (투자) 러-우 사태 이후 공급망 재편 및 정부·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
  - 러시아는 러-우 사태 이후, 예산 투입을 통한 정부 주도 투자\* 확대
    - \* 주요 분야는 금속가공, 운송기기 및 국방 분야 등으로 그 외 균형발전 목적의 러시아 극동지방 인프라 개발 투자 진행
  - 반면, 카자흐스탄은 민간 위주의 투자 확대 추세
    - \* 현지 공급망 재편 주요 분야인 운송 및 창고업 중심 투자 증가

- (고용) 역내 실업률은 양호하며 러시아는 실업률 최저치 경신 중
  - 러-우 사태 이후 인력 유출, 동원령 등으로 러시아는 연방 수립 이후 최저 실업률 경신 중('23년 평균 실업률 3.3% 전망)
  - 이외 CIS 국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5~6% 내외의 실업률 기록
    - \* 단, 우크라이나는 '23년 실업률 약 19.4% 전망(IMF)
- (정책) 수입 대체화 및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제조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 추진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국가는 수입 대체화 및 자국 산업 육성 추진

국가	주요 내용
러시아	'2035 제조업 발전 종합 전략' 수립 및 수출 잠재력, 글로벌 경쟁력 및 기술적 주권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 추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2050 전략' 통한 자국 선진국화 도모, 운송, 관광, 의료, 금융 등 7개 산업 116개 제품 등을 Export Basket으로 선정, 유망분야 서비스 육성
우즈베키스탄	식품가공, 섬유, 화학, 제약 등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분야 선정 및 자국생산 관련 원재료, 기술/설비 조달 시 적극적 관세 인하(면제) 시행
몽골	'신부흥정책 2030'에 따라 광업의존형 경제구조 다변화 및 농축산업, 경공업 분야 집중 육성
아제르바이잔	석유 등 자원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 개선 및 농업 부분 생산성 향상 추진 (전체인구 약 37%가 농업 종사)
벨라루스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공동으로 수입 대체 프로젝트 계획('22.10월, 러시아의 15억불 차관제공 발표 등)

-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은 원조 축소 가능성 등으로 지연 전망
  - 우크라이나는 '재건 계획('22.7월)'을 발표했으나 러-우 사태 장기화, 정부 재정 악화 및 대외원조 축소 가능성 등으로 '24년 긴급복구 사업 형태로 일부 프로젝트만 진행 전망
    - \* '23년 우크라이나 정부예산 약 720억 달러 중 60%가 차관 또는 무상 원조

## 나. 2024년 무역·산업 환경

- (무역·통상환경) 러시아와 우호국간 경제협력 집중의 양상을 보이며 물품 대체 공급 루트로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한 중앙아시아가 부상
  - 러시아는 서방 경제제재 대응 대체 공급로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활용
    -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3.2%(2조 6,000억 달러) 수준
    - EAEU 회원국은 동일 언어(러시아어) 및 단일 인증제도 기반, 무관세 통관 가능
  - 한편, 중앙아시아는 점진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러시아와의 인접성 및 사회, 금융, 물류시스템 유사성 등으로 러-우 사태 이후 CIS 내 '전략시장'으로 재조명
    - 서방의 대러 제재 속 러시아의 우회 수입 통로로서 '22년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전년 대비 수입 규모 증가
      - \* 카자흐스탄(+120%), 우즈베키스탄(+119%), 키르기스스탄(+173%), 타지키스탄(+123%), 투르크메니스탄(+111%)
  - 중앙아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역규모를 키우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이탈 외국기업의 자국유치 및 생산 거점 이전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
  - 동시에 석유, 가스, 우라늄 등의 자원 보유 및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통로로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며 러시아, 미국,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유지 또는 포섭하기 위해 노력
  - 그 외 몽골 및 조지아는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TIPF\* 체결 등 통상이슈 보유
    -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인 관세 축소 또는 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업무협약으로 우리 정부가 '23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새로운 개념의 통상협력 체계
  - 한편, 에너지·자원 수출 구조의 CIS 국가는 국제유가 등 외부 요소에 의한 무역환경 변화 가능성 상존
    - CIS 내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22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정부 개입 등을 통해 '23년 상반기 이후 일부 안정세
    - 중동 분쟁('23.10월) 등 외부 요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국제유가가 재정수입에 영향이 큰 국가의 화폐가치 상승 가능성 상존

- (산업환경) 러-우 사태 이후 전 산업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는 동시에 에너지, 원전 등 외부 협력 수요 증가
  - (자동차) 러-우 사태 이후, CIS 자동차 공급의 중심을 차지했던 러시아 내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생산 중단·철회로 러시아는 물론, CIS 내 신차 부족 상황 발생
    - 이러한 영향으로 CIS 전역에서 중고차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립 등 생산기반을 보유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협력 통한 현지 생산 확대 계획
    - 현지 조립·생산 확대로 신차용 부품과 차량 보유 장기화에 따른 중고차용 교체 부품 수요가 동시에 증가
  - (기계·장비) 권역 내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기계 수입 및 공장 현대화 추진
    - 기존에 수입하지 않던 제품을 현지 가공산업 육성정책 등에 맞춰 신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경우 증가
      - \* 금속가공용 머시닝 센터는 러-우 사태 이후의 신규 도입 품목(러시아·카자흐·우즈베크)
    - 기존 서방 제품의 공백을 중국산이 대체하고 있으나, 고난도 정밀성을 요구하는 공작기계류의 경우, 한국·일본에 대한 수요 존재
    - 또한 러시아 등 대형유통망의 자체 PB상품 수요증가로 자체 제조 증가세
      - \* 외부 요인에 따른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상존에 소비자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에 높은 관심
  - (원전) '23.8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12조 원 규모의 자국 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확정
    - \* 총 2,800MW 규모이며, 2035년 완공 목표
    - 한국은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현지 정부의 우선 검토 리스트에 포함

**【 카자흐스탄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우선 검토 리스트 】**





기업명(국가)	원자로
EDF(프랑스)	EPR-1200
RosAtom(러시아)	BBЭP-1200, BBЭP-1000
KHNP(한국)	APR-1400
CNNC(중국)	HPR-1000

- 우선 검토 리스트 내 업체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자재 및 소형원전 등으로도 중앙아 원전 시장은 확대 전망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증가 예상 품목] 석유제품, 화장품, 일반/정밀기계, 철강제품






품목	전망	수출증감요인
석유제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브랜드(BP, Shell, Total 등) 러시아 사업 철수로 한국 윤활유 수입 지속 증가 중 ('22년 대한 수입액은 116.7% 증가한 2억불)</li> </ul>
화장품	 (대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제르바이잔, 몽골)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 뷰티제품 인기</li> <li>* 몽골의 對한 화장품 수입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li> </ul>
일반/정밀기계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자흐스탄) 현대기아차 공장 증설로 관련 기계 수입 증가 전망</li> <li>(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에 따른 제조업 육성 정책 하, 농업 및 건설업 자재 생산 기계장비 수요가 증가 전망</li> <li>* 현재 농업용 기계장비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li> </ul>
철강제품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재편과 대러 제재 지속으로 CIS 국가에서 한국이나 중국으로 수입처 전환 및 대체 거래처 발굴 움직임 확대</li> <li>* (우즈벡) '23.9월 기준 평판압연제품(7210499092) 전년 동기 대비 353.4% 증가</li> <li>단,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생산 증가로 수입 감소</li> </ul>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자동차부품

품목	전망	수출증감요인
자동차부품	 (현상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일부 제재 비대상 품목은 한국 등에서 조달 예정</li> <li>(우즈베키스탄) 對우즈벡 전통적 수출 호조 품목이나 최근 UZ AUTO사의 한국산 모델 단종 등으로 수출 하락 중</li> <li>(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쎄 연간 7만대 생산 규모의 기아차 조립생산 공장 건설 및 알마티 현대차 공장 CKD 조립라인 증설로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증가 기대</li> </ul>

□ [감소 예상 품목] 자동차부품,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품목	전망	수출증감요인
섬유류	 (대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유명 해외브랜드 다수 철수 혹은 러시아 기업에게 공장/브랜드 매각, '23년 1분기에만 8개 신규 의류기업이 러시아에 진출(대부분 튀르키예)</li> </ul>
평판디스플레이	 (대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현지 공장가동률 20% 수준, 러-우 사태 이후에도 일부 품목이 수출 제한 품목에 여전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감소 전망</li> <li>(카자흐스탄) 달러 강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중국산 및 베트남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li> </ul>
반도체	 (대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수출제한품목으로 대러시아 수출 감소 지속</li> <li>(카자흐스탄) 對러 우회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라 카자흐스탄 수입량 전년 동기 대비 84.3% 감소('23.9월)</li> </ul>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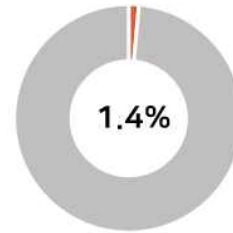
## 10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 '24년 한국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역대 제조업 육성정책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 】



【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비중('23년) 】



### 가. 2024년 경제 및 시장여건

- (경제성장) '24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하며 완만한 반등 기대(IMF, '23.10)
  -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다소 둔화된 경제성장률이 '24년을 기점으로 반등할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전년 대비, %) 】

지역	'22년	'23년(e)	'24년(f)	'25년(f)
세계	3.5	3.0	2.9	3.1
선진국	2.6	1.5	1.4	1.7
개발도상국	4.1	4.0	4.0	3.9
<b>아프리카(사하라 이남)</b>	<b>4.0</b>	<b>3.3</b>	<b>4.0</b>	<b>4.3</b>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23.10월)

- (물가) '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14.5%를 기록하며 '17년(10.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3년과 '24년은 각각 17.6%, 16.7%로 전망(EIU)
  -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에너지, 수입 물가 상승 등 향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통화긴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내로 조정되는 국가들은 긴축 사이클을 중단할 수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예상

- (환율)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 평가절하 관찰
  -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으로 '22년 SSA 국가의 환율이 평균 7% 평가 절하되어 외채 부담과 재정위기 악화
  -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많아 환율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 (부채) '22년 GDP 대비 정부부채 56.6%, 대외채무 24.3%로 코로나 이후 증가한 부채가 현상유지
  - 높은 이자율, 환율 변동 등으로 추가 채권발행 불가 및 기 발행 채권 만기일 도래로 IMF 구제금융 신청 국가 증가
  - \* 정부 부채비율(%) : ('19년) 37.6 → ('22년) 56.5, 대외채무비율 : ('19년) 24.3 → ('22년) 24.2

□ (정책)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추진

- 정부 주도로 제조업 기반 확충, 인프라 개발, 소비시장 확대 등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 각국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기업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위해 특별경제구역,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운영하며 입주 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한편, 남아공 등 일부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 육성, 현지 조달 강화 등을 위해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

**【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산업 다각화 정책 】**

국가	정책	주요내용
가나	국가산업 활성화 정책	▶ 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 통한 투자유치 및 전략적 앵커 산업 배치 ▶ 식품가공, 제약, 자동차, 섬유/의류, 석유화학, ICT 등 지원
남아공	산업정책 행동계획	▶ 경제성장, 수출증진, 제조업 환경 구축, 인센티브 확대, 에너지 생산, IT 기술 발전, 정책적 확실성 강화 등이 주요 정책
케냐	국가산업정책	▶ 국내 제조 산업 보호 : 수입규제, 세제혜택 강화 ▶ 섬유/의류, 자동차조립, ICT 등 지원
탄자니아	종합산업 발전정책	▶ 국가발전 최우선 과제로 산업화 천명, 세제혜택 등 투자 장려 ▶ 자동차조립, 석유화학, 농기계, 조선, 섬유/의류, 제약 등 지원







\* 자료원 : 각국 정부 홈페이지

## 나. 2024년 수출환경




- (무역·통상환경)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교역 확대 추진
  - AfCFTA는 아프리카 내 무역자유화 및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18.3월 출범했으며,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55개국 중 54개국 가입(46개국 비준)
    - 총 GDP 3.4조 달러, 인구 13억 명 규모의 아프리카 대륙을 통합하는 협정으로, 역내 교역 확대를 통해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
      - \* 상품 무역에서 관세의 90% 이상을 철폐하는 것이 주요 합의 내용이며, AfCFTA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개선, 통관절차 지연 등의 장애요인 극복 필요
  - AfCFTA 이행시 역내 무역량 증가, 무역자유화, 비관세장벽 철폐 등으로 가격 경쟁력 개선 및 FDI 유입으로 주요 국가들의 투자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산업환경) 1차 산업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각화 노력
  - 원유, 광물, 농산물 등 1차 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매우 취약
    - 막대한 지하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자원·기술인력·인프라 부족, 높은 운송비, 관리능력의 부재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제조업 기반 확충, 다양한 신산업 육성, 인프라 개발, 소비시장 확대 등 정책적 노력
  - (농업) 기후변화 및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농업 생산성 확대 필요
    - 아프리카는 전 세계 경작 가능 토지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의 미경작 농지를 보유
      - \* 수단, 남수단, 콩고,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등 8개국은 아프리카 미개발 농지 면적의 2/3를 차지
    - 각국 정부는 미경작지 개발, 신기술 접목, 재정 지원,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한 농업 개혁을 위해 노력
    - 농업 변혁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꾸준히 유지될 시 '30년 아프리카 농업시장 규모가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세계은행)

##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증가 예상 품목] 일반/정밀기계,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정밀기계	 (대폭증가)	• 주요국 제조업 육성 정책, 인프라 확충 노력에 따라 기계 수요는 꾸준히 증가 전망
자동차	 (대폭증가)	• 중소형 SUV 중심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 • 국내 제조 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직수입 감소
철강제품	 (대폭증가)	• 건설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 기대 • 원자재 가격상승, 저가 제품의 대체로 리스크 존재
석유화학	 (대폭증가)	• 꾸준한 일회용품 필수재 수요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자동차부품	 (대폭증가)	• 신차 대비 중고차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및 한국산 차량 인지도 증가에 따라 관련 수입 수요 동반 상승
석유제품	 (소폭증가)	• 對아프리카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연도별 수출 편차가 크지만 '24년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지(보합) 예상 품목]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가전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현상유지)	• 제조업 등 섬유산업 육성에 따라 의류 수입은 줄고 중고 의류의 경우에는 현상 유지 전망됨
무선통신기기	 (현상유지)	• 중국산 저가품에 대한 수요 가운데 한국산 고급품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존재
가전	 (현상유지)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존재하나 한국에서 직수출이 아닌 제3국 제조 공장에서 수출

□ [감소 예상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소폭감소)	• 중국산 브랜드 현지 생산품이 저렴하게 보급되고 있어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하위

주 :  대폭증가(10% 이상)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 이상)

## 작 성 자

- 무역투자연구센터      황성운
- 무역투자연구센터      강지숙
- 무역투자연구센터      송민주
- 무역투자연구센터      변혁주
- 북미지역본부          신용호
- 중국지역본부          박영훈
- 유럽지역본부          이주혜
- 일본지역본부          최효식
- 일본지역본부          고범창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이병탁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서진원
- 서남아지역본부          권오승
- 서남아지역본부          한송옥
- 중동지역본부          구은아
- 중동지역본부          박설민
- 중남미지역본부          조윤후
- CIS지역본부            신지현
- 아프리카지역본부        허종원

# 2024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Global Market Report 23-042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문의처	무역투자연구센터(02-3460-7597)

• ISBN: 979-11-402-0801-2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